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를 다시 읽다” ?

- 이화진의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를 다시 읽다: 그의 학술 활동과 1930년대 독일 미술사학계의 평가 - Rereading Andreas Eckardt: His Scholarly Work and Its Evaluation in the German Art History Discourse of the 1930s”에 대한 반론⁻¹

Albrecht Huwe (알브레히트 후베, 독일 본 대학교)

I. 서론

II. 본론

1.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문
2. "II. 에카르트와 독일 미술사학계"
 1. 『한국미술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3. "II. 2.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와 에카르트의 수강 과목"에 대하여
4. "III. 제 3 제국 시기의 에카르트"
 1. 교수 에카르트 박사 (Prof. Dr. Eckardt) 는 존재하는가 ?"에 대하여
5. "III. 2. 안드레 (Andre) 와 안드레아스 (Andreas)"에 대하여
6. 이름 변형의 실제 이유

III. 결론

I. 서론

논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인 이화진(이하: 저자)은 한국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1961년 한국의 최고 문화훈장을 수여 받은 안드레(아스) 에카르트(1884~1974)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독일의 몇 기록 보관소를² 방문 검색했다. 이화진의 목표는 1930년경 독일 미술사학자들이 에카르트 의 저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사하여 에카르트 저서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글의 초점은 1929년 독일어와 영어로 동시 출판된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³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에카르트의 생애까지 검토한다. 저자는 “[에카르트의] 『한국미술사』를 비롯한 미술사 연구와 나치의 정치적 그늘 아래 그가 선택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하며 지금까지 신화화된 인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 이라는 놀라운 말로 끝을 맺는다.

저자는 에카르트의 생애에서 심각한 ‘결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므로 에카르트를 재평가 하게 되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점’은 에카르트 개인과 그의 업적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어 왔음을 확증한다. 이로서 저자가 에카르트의 한국 민족과 문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에카르트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한 윤보선(1897~1990) 전 대통령과 많은 사람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한국의 여론에

1 한국어 원본에 대한 서지 정보는 참고문헌에서 LEE 2025를 참조.

반론에 들어가기 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이화진의 위 논문은 예컨대 석굴암과 한국 미술사 이론에 대한 에카르트의 설명을 내용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에카르트 생애 및 학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찾아 내려고 한다. 그리고 에카르트 제자이며 공식 유물 상속자인 본인의 에카르트에 대한 진실이 거짓이라는 이화진의 주장(아래와 비교)에 본인은 에카르트와 브루노 레빈 (Bruno Lewin, 1924~2012) 두 한국학 지도 교수의 정직하고 진리를 모색하는 연구 정신을 본으로 삼고 이 반론을 객관적으로 집필하도록 노력했다.

2 뮌헨 대학교 기록 보관소, 바이에른 중앙 주립 기록 보관소, 뮌헨 시립 기록 보관소,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교 기록 보관소에 대한 서면 요청서가 언급되어 있다.

3 ECKARDT 1929 a, 1929 b 참조.

4 LEE 2025, 53.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자기의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⁵ 이 태도는 학문적으로 진실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용감하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는 본 반론 끝에 결정하기로 한다.

기록 보관소의 자료 및 그의 학술적으로 올바른 취급. 원래, 기록 보관소와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 인물의 전기와 업적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공적인 기록 보관소일지라도 그러한 자료를 맹목적으로 사용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다.⁶ 자료의 신뢰성과 입증 가치가 저절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저자의 의도따라 인물의 생애에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낼 경우이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학술적 연구의 확실한 토대를 쉽게 잃을 위험이 있고, 개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고인에 대한 추모를 훼손할 수 있다. “[에카르트]의 『한국미술사』를 비롯한 미술사 연구와 나치의 정치적 그늘 아래 그가 선택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하며 지금까지 신화화된 인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위에 인용된 문장은 저자가 에카르트를 영구적인 나치 지지자로 의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930년대, 즉 나치 시대와 그 이후의 민감한 주제, 즉 독일과 전 세계에 일어난 비극에 대한 죄와 무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는 어떤 경우이러도 극도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을 종종 다른 사람에게 밀어 보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에카르트가 당시 머물고 있던 브라운슈바이크에 이 암흑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처리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리고 에카르트가 서거한 지 5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번엔 한국에서 온 그 도전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에카르트와 이미륵(1897~1950)⁷은 우수한 한독 관계에 상징 인물로 여겨지므로 주의와 정확성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저자가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 계기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에카르트에 관한, 본인의 짧은 글을 읽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⁸ 따라서 저자는 성급한 결론으로 한국과 독일 간의 공식적인 정치 및 외교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주의, 즉 출처와 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위해 철저한 문헌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과학 연구의 전제 조건이다. 주제에 대한 민감성, 맥락에 대한 공감, 그리고 책임감 또한 신중함의 또 다른 측면이다. 주제에 대한 정확성, 상황에 대한 공감, 심지어 책임감은 주의의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모든 측면이 언어 차원에서 실현되므로, 성숙한 언어 능력은 양심적인 과학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이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논문에서 모든 측면으로 시행되었다면, 저자가 제시한 연구결과도 인정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증거를 제시 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5 에카르트에 관한 다양한 논문과 한국 다큐멘터리를 참조: “안드레 에카르트” (다큐), https://ko.wikipedia.org/wiki/안드레_에카르트 [2025.08.15].

6 HOWELL/PREVENIER 2004에서 기록 보관소 자료도 포함된 역사자료 분석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찾아볼 수 있다.

7 실비아 브레젤(Sylvia Bräsel)의 광범위한 기록 보관소 조사에 따르면, 이미륵의 출생 연도는 흔히 언급되는 1899년이 아니라 1897년이다. BRÄSEL 2025 참조.

8 *Bilanz einer Freundschaft: Hundert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hrsg. Komitee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Bonn 1984, 119 p. 참조.

신중함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의 결론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그의 논문을 이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저자가 위의 인용과 연결해서 “이 연구는 에카르트(*에카르트*)의 사적인 자료가 아닌 독일의 공식 기관에 소장된 문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⁹고 하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할 때 저자의 기록 보관 자료에 대한 태도 및 학술적 감수성에 대한 첫 의심이 생긴다.

‘공식 기록 보관소’의 자료 및 ‘사적인 자료’를 각각 구분함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정확히 ‘사적 자료’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실은 ‘사적인 자료’는 예컨대 미공개 일기 기록이나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맹목적으로 배제하면 학술적인 객관성을 쉽게 잃을 수 있게 마련이다.

전체 논문을 읽은 후 독자는 저자가 명백히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인상을 굳힌다. 즉, 모든 ‘공식 자료’는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사적인 자료’는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쓸모없다는 전제이다. 저자는 위의 인용문으로 그의 논문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기록 자료 작업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만 한다.¹⁰ 왜냐하면 기록 자료 처리와 관련된 중대한 오류들을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에카르트와 독일 미술사학계, III. 2. 안드레 (Andre) 와 안드레아스 (Andreas)와 비교).

II. 본론

1.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문

저자의 논문 각 섹션의 신빙성을 살펴 보기 전에 처음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 논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우선, 저자도 한국 근·현대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되며 에카르트가 한국에서 머무른 시기(1909~1928 년)는 일제강점기였다는 사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국이 자주 독립적인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한 이 시기에 에카르트가 1923 년에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조선어교제 문전』과¹¹ 1929 년 동시에 독일어 및 영어로 『조선미술사』를 유럽에서¹² 출판했다는, 큰 용기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1926 년 에카르트는 도쿄에 있던 독일 동아시아 자연 및 민족학 협회에서 『한글의 기원』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리고 1930 년 『한국음악』에 대한 책도 출판되었다. 위 책들과 기타 그 당시의 논문에서 에카르트는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나 일본문화의 일부가 아닌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9 LEE 2025, 53.

10 기록학 입문서로 권장되는 책은: FRANZ/LUX 2018.

11 밑줄로 강조한 부분은 본 반론의 저자인 A.H.가 한 것이다.

시인이자 고대 한국어 최초의 사전인 『조선고어사전』(1949)의 저자로 알려진 정희준(1914-?, 한국 분단 이후 북한 거주)은 1938 년 권위 있는 학술지 『한글』에 실린 짧은 기사에서 에카르트가 독일어권에 『조선어교제문전』을 통해 한글을 근본적으로 소개하고, 『조선어교제문전』의 독일 내에서의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쇄, 출판과정과 관련된 여러 지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희준은 에카르트에 대한 지식을 북한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확실하다. 한글과 관련하여 에카르트는 남과 북 사이의 가교 역할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ŒNG 1938, 6 p.; 정희준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Yi 2013 참조.

12 독일어와 영어 판 외에도 일본어와 한국어 판도 참조: ECKARDT 1995, ECKARDT 2003.

독립적인 문화로 취급한다. 『한국음악』에서 에카르트가 그의 신념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한국은 중국의 우수한 제자이자 동시에 일본의 스승이었다.”¹³

한국 문화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에카르트의 저작물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만 존재했던 시기에 쓰여졌다. 에카르트가 그의 저서 『조선미술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미술의 독립성은 유럽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의문시되었다.¹⁴ 따라서 그의 미술사는 개선이 필요했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대응을 국제적으로 더 강화시키기 위해 동시에 독일어와 영어로 출판한 것이었다. 이 사실들은 에카르트가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을 위하여 시행한 연구 동기의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은 모든 한국에서 저술한 저작물 중에 1928년 처음 독일에서 낸, 그리고 2024년의 이중 기념해에¹⁵ 재판된 『한국동화집』에서도¹⁶ 잘 나타난다. 한국 국민의 억압과 굴욕을 직접 체험한 에카르트는 그의 저작물을 통해서 한국 국민과의 공감을 표현하여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뒷받침하려고 했다.¹⁷ 이것은 그의 동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에카르트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있다.

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저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즉 시간과 장소, 및 이와 관련 된 에카르트의 이중적인 동기를 고려해야 했었는데, 즉 언제, 어디서, 왜, 무슨 의도로 등 그것이다. 에카르트 저작물의 제작 시기와 장소, 즉 연구 및 집필 단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에카르트가 1909년부터 1928년까지 살던, 일본에 의해 주권을 박탈당했던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카르트가 조선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기는 억압받던 나라와 그 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카르트의 저작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의 저작물들은 서구, 특히 독일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뛰어난 문화의 진가를 알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논문에서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의 논문과 그의 질문은 시간과 장소의 두 번째 차원, 즉 1930년대 독일과 나치 테러를 끌어내면서 혼돈을 일으킨다.

에카르트는 독일에서, 특히 학계에서 한국 관련 출판물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¹⁸ 에카르트가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네덜란드-인도 정부에 한국 자모문자 즉 한글의 존재를 보고하고 문자 표본을 보냈을 때 겪었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장남인 알렉산더 폰 지볼트(Alexander von Siebold, 1846~1911)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양어 권위자로 여겨졌던 클라프로트[Klapproth !!], 1783~1835]는 지볼트가 한글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으며, 세상에 그런 믿기

13 ECKARDT 1930 a, VIII.

이미 전에 ECKARDT 1929 a, 6.

14 ECKARDT 1929 a, 7 참조.

15 찬사 HUWE/VAN STEPHOLD 2024 참조.

16 ECKARDT 2025 참조.

17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에카르트의 서울 사범학교에서 맡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 직접 교과서를 썼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이 교과서 중에 『朝鮮語文典』이 1913년에 처음으로 나온 책이었다. 정체성과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경멸 받던 시기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체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18 외교관이자 한국 전문가이며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 페어뱅크 센터의 연구원인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22~1988)은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학술적인 무관심이 계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드레 에카르트와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 1886~1971)의 선구적인 업적을 뛰어난 개인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HENDERSON 1982, VII~XI 참조.

어려운 발견을 한 젊은 학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한다.”¹⁹ 이 사건은 에카르트보다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에카르트에게는 당시 독일의 학계 상황을 보여 주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²⁰ 이 일화에서 받을 수 있는 결론은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도서관 카탈로그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듯이, 에카르트의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 (A) History of Korean Art』(조선미술사)는 서양에서 이 주제만을 전문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 저서이다. 당시 독일 동아시아 미술 전문가 중 일부는 한국 미술을 중국 미술의 일부로만 여겼고(아래 9 쪽 이하 참조), 225 페이지와 168 장의 도판으로 구성된 이 대형 단행본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에카르트처럼 당시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에 의해 갑자기 자기의 지식이 모자라다고 깨닫게 되면, 학계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리고 에카르트가 독일로 귀국했을 당시 이처럼 다소 편협했던 학계는 나치의 테러로 인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점점 더 몰락했다.²¹

이제 저자는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대한 독일 학계의 반응을 통해 이 저술물의 가치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그것은 정보의 범위가 부족하므로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학문적 원칙은 여러 측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 첫째, 저자가 ‘사적인’ 자료를 배제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11, 12 쪽 참조). 둘째, 에카르트는 국제적인 반향을 얻기 위해 『조선미술사』를 독일어와 영어로 출판했다. 따라서 독일의 반응(아래 9, 10, 11, 11 쪽 참조)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의 반응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1930년대 독일 학계가 처했던,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이념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 넷째,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 자료를 비판적 전문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네 가지 요점 모두에서 저자의 논문 전체는 매우 의문스러운 면이 드러난다.

이 논문의 제목 역시 여러 측면에서 이해의 혼란을 야기한다. 주제명에 의하면 저자는 에카르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부제목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의 [에카르트의] 학술 활동과 [...] 독일 미술사학계의 평가”²². 학술 활동과 평가가 따로 조사된다는 뜻인가? 사실 이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영어 부제를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재평가는 독일 미술사학계의 담론이 에카르트의 학술 업적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통해서 그의 학술업적을 재평가하려고 하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진 제목도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독일 미술사학계는 사실상 미술사학, 언어학, 문자학, 음악학, 종교학 등등을 포함하는 에카르트의 광범위한 한국학 연구를 다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 ECKARDT 1928, C10에서 인용됨.

20 독일(동독과 서독)에서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전쟁 이후, 특히 서독에서 분단의 공동 운명과 서독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다. 뮌헨에 있어서의 이미지 활동과 운명, 특히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자전 소설은 독일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는데, 이는 저명한 중국학자인 볼프강 바우어(Wolfgang Bauer, 1930~1997)의 서문에서 인상적으로 읽을 수 있다.

LI 1946; BAUER 2011 참조.

21 뮌헨 대학교 기념관에 전시된 백장미단 전단지에는 이 사실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국가에서 자랐습니다.” (6 번째 백장미단 전단지, 1943년; 뮌헨 대학교, 백장미단 기념관).

22 LEE 2025, 35.

저자의 논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모호하게 표현된 제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에카르트 연구에 대한 제삼자의 평가, 예를 들어 에카르트의 연구 업적이나 새로운 학술적 발견에 대한 평가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오히려 에카르트를 나치 정권과 협력했다가 이를 은폐하려 했던 의심스러운 인물로 묘사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에카르트의 이러한 의심스러운 면이 에카르트의 연구를 폄하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주장은 저자의 새로운 시각이다. 이러한 기본 이념은 논문 각 섹션의 실제 가중치에도 반영된다. 본론이 되는 네 개의 섹션 (II.1. 『한국미술사』에 대한 평가, II.2.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와 에카르트의 수강 과목, III.1. 교수 에카르트 박사(Prof. Dr. Eckardt)는 존재하는가?, III. 2. 안드레 (Andre)와 안드레아스(Andreas)은 총 16 페이지로 구성 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부제를 표현하는, 평가에 관한 첫 번째 섹션은 3 페이지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에카르트와 그의 나치 음모 의혹에 관한 것이다. 저자 논문의 진정한 의도는 이러한 주제적 강조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동시에 글의 주제와 내용 사이의 비학술 적인 불일치를 부각한다 (23 쪽도 참조).

저자는 에카르트의 연구 작업과 작품에 대한 수용이 “동시대”에²³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 말은 너무 피상적이므로 정확하지 않은 접근이다. 1920 년대 에카르트가 한국에서 한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의 삶에 독일로의 귀국과 독일 내 국가사회주의 확산보다 분명히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이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독일로 귀국한 에카르트의 삶과 그의 저작물들의 수용은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 창작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수용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로 묶어 각각 다른 차원을 이렇게 융합하는 것은 저자 논문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전체 논문을 확실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올려 놓게 한다.²⁴ 이는 내용과 방법론상 공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 또 다른 근본적인 사고의 오류가 추가된다. 이는 저자가 에카르트의 삶과 그의 저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은 채 짧은 시기의 관점에서만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의 논문 부제목이 말하듯이, 20 세기의 1930 년대, 사실상 나치 시대에서만 관심의 대상이다.

에카르트의 저작물에 대한 균형 잡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그의 저작물을 직접 읽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었을 것이다. 저자의 논문은 독일 학계에서의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조선미술사』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야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자의 논문에서는 거의 읽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저자가 원작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추정은 에카르트가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미술의 독립성이 서구에서 의문시되어 왔다는 설명을 무시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에카르트의 의도를 무시한 이러한 태도는 학술적인 성실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저자가 독단적으로 제목을 바꾸는 경박함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제목은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와 『(A) History of Korean Art』이다. 2003 년 열화당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어 번역본의 줄인 정식 제목은 『조선미술사』이다.²⁵ 일본어 번역본의 제목도 이와 일치하다.²⁶ 저자는

23 LEE 2025, 37 참조.

24 게다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저자는 기록 보관소 자료를 전혀 전문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3, 8, 11, 24 기타 쪽을 참조.

25 완전한 제목은 ECKARDT 2003 참조.

26 ECKARDT 1995 참조.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미술사』라고 쓴다. 이로 인한 혼란과 저작권 무시는 학술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²⁷

이러한 부주의와 성실성의 부족은 논문 서두의 첫 줄과 끝부분의 한국어 및 영어 요약에서도 드러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에카르트는 1909년부터 1928년까지 한국에서 “20 여년 동안”²⁸으로 살았고, 영어 요약에는 “over two decades”²⁹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번역은 ‘거의 20 년’ 또는 ‘at most two decades’이다.

저자가 주의하지 않은, 언급한 에카르트의 업적 외에도 에카르트가 한국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이룬 업적이 몇 가지 있다.

◇ 서울 옛 백동(현 혜화동) 숭신 사범학교에 담당하던 수업과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쓴 조선어 문법 교과서(도 8 참조)는 이미 간략하게 언급되었다(주석 17 참조).

◇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에카르트는 한국 식물 표본을 만들었다. 현재 희귀하거나 심지어 멸종된 식물을 포함한 400 여 종의 한반도 식물을 식물학 표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독특한 표본집은 2005 년 이전 보관소였던 성 오틸리엔 대수도원이 한국에 공식 기증했으며, 2015 년부터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광릉)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³⁰

◇ 뮌헨 독일 박물관(Deutsches Museum)의 “이미지 - 문자 - 코드” 전시는 1377 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진 ‘직지(直指)’라는 제목의 불교 경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크고 흥미로운 디자인의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³¹ 이곳에서 전 세계 방문객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금속활자 인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였음을 알게 된다. 독일 박물관 에 한국 인쇄술에 관한 이 전시 공간은 누구의 덕으로 생겼을까?

에카르트의 유물에는 뮌헨 독일 박물관 이사장 테오 스틸거(Theo Stillger, 1920~1982)가 1971 년에 보낸 서한이 보관되어 있다. 스틸거 이사장은 에카르트가 『직지』와 한국 인쇄 기술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전시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즉 한국 정부와 박물관을 중개해 준 에카르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스틸거 이사장은 에카르트가 전시 개막식에서 발표해 준 전문적인 강연을 높이 평가했다(사진 1 참조). 한국 인쇄 기술에 대한 전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규모는 지속적인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27 에카르트의 성격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그의 유명한 작품 『시와 진실』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를 『한국미술사』로 생각 없이 바꾸면서 폰 괴테의 『시와 진실』을 인용할 때는 ‘진실과 시’로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다.

28 LEE 2025, 36, 52.

29 LEE 2025, 55.

30 자세한 내용은 성 오틸리엔 선교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한국 신문 기사 중 중앙일보 기사가 식물과 에카르트에 관한 일련의 사진과 함께 눈에 띈다. KBS 텔레비전 뉴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기자 이철호).

<https://www.missionsmuseum.de/ueber-uns/rueckgaben> [2025.08.15]; CHŌN 2015; Yi 2015.

31 <https://www.deutsches-museum.de/museumsinsel/programm/veranstaltung/im-anfang-war-jikji> [2025.08.15].

한국 인쇄술 역사에 대한 짧은 기사는 HUWE 1995 참조.

◇ 에카르트트는 사전 편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1년 그의 『한독사전』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편찬된 사전보다 3년 앞선 것이었다.³² 이를 통해 그는 노년까지도 독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 에카르트트는 1974년 1월 서거 직전에 작별 선물로 『한국교향곡 Korea Sinfonie』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에 헌정했다. 이 곡은 1994년 9월 그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한국 음악학계에서 이 작품의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1950~1953) 때에 소실되었던 전통 선율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³³

에카르트트는 1920년대 이후의 『조선미술사』와 모든 저작물을 포함하여, 긴 생애의 마지막까지 한국, 그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사심 없이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³⁴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증명되며 그의 삶 속에 어떤 정치적, 이념적 얽힘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무관하다(아래와 참조). 위 근본적인 고찰에 이어, 저자의 논문이 제시한 목차 순서대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 “II. 에카르트트와 독일 미술사학계

1. 『한국미술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내용과 비판. 이 장(章)은 뮌헨 대학교 기록 보관소의 서류(도 2)로³⁵ 시작한다. 이 서류 아래에는 설명이 있다. 저자는 뮌헨 대학교 인문대 학장을 발신자로, 바이에른주 교육 문화부를 수신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저자는 1934년 11월 23일자 서신을 포함하여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도[그림]로 삽입된 이 서류에는 서류의 작성자, 서명, 작성 날짜, 수신자 등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저자는 연구 교수로서 기록 보관소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 기록 보관소 자료는 항상 다른 자료와 교차 검증해야 한다. 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두 ‘간접’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증은 더욱 더 불가피하다. 한 인물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하기 위해 이 서류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학문적 근면함과 신중함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가 도출한 모든 ‘발견’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저자의 의심스러운 주장을 파악하고 반박하기 위해 이 익명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의심스러운 글을 자세히 보면 익명의 작성자가 당시 동아시아 미술학의 거장으로 여겨졌던 오토 쿼멜/귀멜(Otto Kümmel, 1874~1952)이 썼다고 주장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쿼멜의 말도 실상 허공에서 나온 것과 같다. 근거가 없으므로 완전히 날조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로 정부 부처에 보낸 서신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다.

32 이 사실은 한국 학자 홀머 브로클로스(Holmer Brochlos)가 지적한 바 있다.
그외 ECKARDT 1971 및 HA 1974 참조.

33 이런 점에서 저자가 제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어 제목 『조선, 지금이 아름다운 나라』는 에카르트트의 마음과 정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독일어 제목 ‘내가 한국을 어떻게 경험했는지’(Wie ich Korea erlebte)보다 한국 독자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
덧붙여, 이 책이 출판된 1950년은 앞서 언급한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를 가리킨다.
S. ECKARDT 1950; ECKARDT 2010.

34 이에 대해서는 본 반론 말미에 발췌하여 게재된 한 전 학생의 편지도 참조.

35 LEE 2025, 38 참조.

이화진 논문의 삽화와 본 반론의 삽화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이화진의 삽화는 그대로 ‘도’로, 본 반론의 삽화는 ‘사진’으로 표기한다. 31~36 쪽의 사진과 도를 참조.

오토 킴멜은 에카르트(*Die Kunst Ostasiens*)의 『조선미술사』를 “그로테스크”이라고 묘사했다고 한다. 계속 “첫째, 그는 아무것도 모르며, 둘째, 과학적으로 사고할 줄도 모른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킴멜이 저명한 학자로서 그런 말을 정말 택했다면 일단 지나친 감정 반응으로 묘하게 느끼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익명의 글에는 킴멜이 에카르트를 표절 혐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록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는 비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말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

하지만 킴멜과 그의 활동, 특히 나치 시대의 활동을 잠깐 보면, 이 말은 그가 아마도 했을지도 모른다(강조는 ‘아마도’에 있다!).

킴멜은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 나치 정당(NSDAP)에 가입했다고 시인했다.³⁶ 그는 나치 정권의 약탈 미술 활동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일사회민주당(SPD) 소속이었던 중국학자 에두아르트 에르케스(Eduard Erkes, 1891~1958)를 비방하고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직에서 제명되게 했다고 한다.³⁷

킴멜은 1921년에 『동아시아 미술 *Die Kunst Ostasiens*』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³⁸ 하지만 이 42쪽짜리 책을 보면 중국과 일본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목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동아시아의 일부인 한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5쪽에서야 한국의 승려와 예술가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들은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 미술품을(일본으로) 가져왔거나 직접 제작했다는 이 짧은 문장뿐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는 그 외에는 찾을 수 없다.

1929년 킴멜은 또 다른 관련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번에는 제목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즉 『중국, 일본, 한국의 미술 *Die Kunst Chinas, Japans und Koreas*』³⁹ 이라고 한다. 이 책은 19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한국에 대한 부분은 오직 187~190페이지에 불과하다.

에카르트의 책에 비하면 킴멜의 한국 미술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서구에 최초로 나온 에카르트의 단행본은 225페이지에다가 168개의 도판이 추가된, 한국 미술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내용만 중요하고 부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 맞는 반론이다. 저자는 논문을 쓰기 전에 미리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를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한국 예술 창작의 다양한 분야가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건축부터 조각과 탑 예술, 불교 조각, 회화, 도자기, 공예(도자기 제외)에 이르기까지, 각각 속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작된 상세 도면도 첨부되어 있다. 요컨대, 이 저작은 전혀 ‘그로테스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제3자의 큰 사전 작업 없이 저자 자신의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우 체계적인 서술이라는 인상을 준다.⁴⁰ 한국에서의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현장 조사에 관해 오토 킴멜이나, 저자가 언급한 윌리엄

36 WALRAVENS 1987, 139 참조.

37 에두아르트 에르케스에 대한 위키백과 기사를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Eduard_Erkes [202508.15.].

38 KÜMMEL 1921 참조.

39 KÜMMEL 1929 참조.

40 저자는 사전 연구와 관련해 에른스트 짐머만(Ernst Zimmermann)의 전시 카탈로그나 아돌프 피셔(Adolf Fischer)의 논문 등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이전에 출간된 저작들을 언급한다. 이러한 저작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것들은 『조선미술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사』의 선구적 업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ZIMMERMANN 1895, FISCHER 1910/1911 참조.

콘(William Cohn, 1880~1961)은 동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미술사에 대한 공헌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서 에카르트의 한국에 대한 업적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조선미술사』를 위해서 전국을 답사한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가 적어도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서문을 편견 없이 읽었다면, 사실 에카르트의 주장에 동의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에카르트는 선양 미술학계에서 한국 고유의 미술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고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는 바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이론적으로 믿는다면, 권력 의식이 강한 오토 쾰펠의 눈에 외부인 에카르트가 등장 하여 『조선미술사』를 가지고 동아시아 미술 전반의 거장인 쾰펠의 명성에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저자가 자신의 주장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의심스러운 서류에 담긴 이러한 반응은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독일 대학의 일상 생활은 시기와 질투가 없지는 않다. 이는 1930 년경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교에서 에카르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아래 21 쪽 이하 참조).

이 서류에서 에카르트는 쾰펠을 비아리아인으로 낙인찍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비아리아 인”이라는 말은 나치 시대에 당연히 모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익명의 이 서류에서 에카르트가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비난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923 년 독일의 유명 출판사에서 두 권짜리 『조선 어교제문전』을 출간한 에카르트에 대해 어떻게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평가. 저자가 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굳이 다루며 그의 논문에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더 놀랍고 ‘그로테스크’한 것은 그의 방법론적 접근 방식이다. 서두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제 III 장에서 저자는 에카르트가 나치 정권과 의심스러운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하며 그의 인격을 의심스럽게 묘사한다 (아래 참조).

이에 따라 저자는 독일에서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대한 질적 평가가 참담하다고 묘사하고, 위에서 쓴 바와 같이 오토 쾰펠에 의거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쾰펠은 나치즘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다.⁴¹ 이처럼 저자가 여기서 행하는 논증 방식은 과학적 진지함의 원칙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비롯된 논증 내 모순은 저자가 이 기이한 서신의 날짜를 1934 년 11 월 23 일로 명시함으로써, 즉 나치 정권이 독일 전역에 확고히 자리 잡은 시기로 설정함으로써도 드러난다. 저자는 에카르트가 나치였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정말 에카르트가 나치 추종자였다면 여기서 제기된 것과 같은 혐의를 왜 적용했을까?

저자는 그가 알려 준 날짜(1934 년 11 월 23 일)에 작성 된 이 서류의 역사적 배경을 적어도 근본적으로나마 숙지했다면 이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34 년말 나치 독일은 외교 정책을 수립하여 1936 년에 일본과 소위 방공 협정을 맺었고 이어 1940 년에 삼국 동맹 조약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은 각자(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영향권에 대한 상호 보장이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권력 요구를 존중한다는 진지한 협상 상대국으로 인정하기 위해 나치 독일은 수많은 저술을 통해 한국의 민족적, 문화적 독자성을 입증한 에카르트와 같은 인물을 눈엣가시로 여겼다는 것은 필연적인

⁴¹ 발라벤 Walraven 의 오토 쾰펠에 관한 논문은 1987 년에 발표되었다.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공개된 자료가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쾰펠 가문은 여전히 오토 쾰펠의 유물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LAMMERT 2022, 3, 주 1 참조.

일이다. 따라서 저자가 앞에 언급한 에카르트가 나치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이에 반박될 수 있다.

저자는 먼저 『조선미술사』에 관한 두 명의 독일 평론가를 소개한다, 즉 테오도르 브뢰링 신부(Theodor Bröring 1883~1960, 산둥성에서 활동한 말씀의 선교수도회, Styler Missionare, 선교사이자 중국학자)와 일본학자 프리드리히 막스 트라우츠(Friedrich Max Trautz, 1877~1952)이다. 그러나 저자는 평론가들이 미술사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증 방식이다. 저명한 동아시아 학자들을 학문적 담론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마도 같은 이유로, 저자는 일본학자 오스카 나호트(Oskar Nachod, 1858~1933)가 쓴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에 대한 서평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⁴² 그리고 만약 저자가 에카르트의 의도처럼 『조선미술사』의 수용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면, 그는 맨체스터 가디언(Manchester Guardian), 아르스 아시아 틱(Ars asiatiques, 파리), 그리고 불레틴 드 레콜 프랑세즈 데크스트렘오리앙(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하노이, 파리)에 실린 서평들을 접했을 것이다.⁴³ 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명백한 정보 은폐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저자 논문의 도 7은⁴⁴ 세 페이지 분량의 원본 중 첫 페이지만을 보여준다. 에카르트는 바로 누락시킨 두 번째 페이지에서 『조선미술사』에 대해 “특별히 인정하는”⁴⁵ 의견을 표명한 평론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제 2 참조). 이들 중에는 카를 에른스트 하우스호퍼(Karl Ernst Haushofer, 1869~1946), 에른스트 뵈르슈만(Ernst Boerschmann, 1873~1949), 요하네스 밍티스트 켈링거(Johannes Baptist Zellinger, 1880~1958), 그리고 쉘리퍼(Schlieper, ?) 교수와 같은 저명한 동아시아 학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 평론가들이 저자에게 배제된 이유는 명백하지 않다. 『조선미술사』의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을 반드시 고려했어야 했다. 따라서 저자의 연구는 불완전하다. 그는 생략된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어차피 호의의 평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정당화한다.⁴⁶ 따라서 저자는 호의의 평론 역시 배제되는 ‘사적인’ 자료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저자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들로 가득 찬 익명의 쓸모없는 서류(도 2)를 완전히 복제하고 분석하는 반면, ‘피고인’(실제로 저자에게 에카르트는 피고인이다)의 글에서는 단 한 페이지만 인용한다는 사실에서,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편향성을 읽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저자의 논문 주제는 실제로 모든 증거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단순히 생략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또한 1923년 에카르트의 『조선어교제문전』과 관련하여 첫 페이지에 언급된 프리드리히 막스 트라우츠 교수, 에리히 헤이니쉬(Erich Hänisch, 1880~1966)교수, F.W.K. 뮐러(F.W.K. Müller, 1863~1930)교수 등 저명한 독일 학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간과하며, 저자의 학술적 진지성이 부족한 것에 다시 한번 놀란다.

만약 오토 쾰멜이 실제로 에카르트를 표절로 비난했다면,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그랬다면, 그가 당시 에카르트와 일본 총독부 사이의 그림 저작권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42 NACHOD 1929.

43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D.C.F. 1930; J.B. 1929; CLAEYS 1929 참조.

44 LEE 2025, 48 참조.

45 사진 2, 제 2 쪽.

46 LEE 2025, 48 참조.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표절 주장은 극히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이 점 역시 이 서류를 출처로 삼은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리고 미술사학자 홍미숙이⁴⁷ 저자 문제를 미술사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명확히 하자고 하는 제안은, 에카르트(Eckardt)의 저작권을 입증한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이 제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서면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안은 유일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⁴⁸

저자가 조사한 기록 자료에서 직접 발견되는 힌트를 간과한 점과 관련하여, 에카르트(Eckardt)의 비나치화 과정에서 작성되어 뮌헨 대학교에 제출된 문서(도 15)도 중요하다.⁴⁹ 그 안에 언급된 나치 과거에 관한 설문지와 미국 군사 당국이 발급한 교수 활동에 대한 허락증명서가 대학 기록 보관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부정확성과 비학술성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 힌트를 추적했어야 했다(에카르트(Eckardt)의 나치 시대 연루 의혹에 관한 문제점들은 17 쪽 이하 참조).

도 2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자는 오류를 범했다. 원문에서는 에카르트(Eckardt)의 'Denkschrift'⁵⁰에 대한 말이 있다. 이는 한국어에 '진정서(陳情書)'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자는 '청원서(請願書)'⁵¹로 옮기는데, 이는 '진정서'와 동의어가 아니다.

3. “II. 2.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와 에카르트(Eckardt)의 수강 과목”에 대하여

내용과 비평. 저자는 에카르트(Eckardt)가 미술사 주제, 특히 한국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미술사를 다루고 저술할 수 있는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먼저 에카르트(Eckardt)가 뮌헨 대학교에서 수강했던 강의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의심을 증거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연구 오류를 범한다. 즉, 저자는 안드레(아스) 에카르트(Eckardt)가 아니라 에카르트(Eckardt)의 형인 안톤 루트비히 에카르트(Anton Ludwig Eckardt, 1880~1960)가 뮌헨 대학교에서 수강했던 강의 목록을 보여 준다(도 3 참조).⁵² 안톤 에카르트(Eckardt) 박사는 보존학자였으며, 당시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존청의 보존학자 및 수석 보존학자였으며, 방대한 미술 사학 저작물을 제작했다.

따라서 저자가 작성한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목록은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저자가 허위 기재, 학업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의심스러운 자격, 또는 안드레(아스) 에카르트(Eckardt)의 이름 변경에 관한 추측은 이것으로 모두 틀린 것이다. 에카르트(Eckardt)는 그의 유물에서 발견된 학업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폭넓은 내용을 다루는 대학 과정을 수료 했으며 또한 그가 타고난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었기에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 사회에서 양심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자였다.

여기서 하나의 비판적인 지적을 하자면, 저자가 기록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은 기록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공식 자료'와 '사적 자료'에 대한 근거 없는

47 다음은 LEE 2025, 39의 각주 7과 관련하여.

48 LEE 2025, 39 참조.

49 LEE 2025, 52 참조.

50 덧붙여, 여기서 에카르트(Eckardt)의 진술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진술은 비교적 숨겨진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에카르트(Eckardt)는 ECKARDT 1955, 154 쪽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이 모음집(김봉제[?]의 시와 중편소설)은 다른 귀중한 자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에서 분실되었다.”

51 LEE 2025, 38 참조.

52 안톤 에카르트(Eckardt)는 1909년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주제는 『17세기 잘츠부르크의 건축』이었다. 자세한 서지 문헌은 다음과 같다: ECKARDT 1910.

구분, 익명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 정보를 생략하는 것등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자료 활용 방식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기록 보관소에서의 자료를 어떤 기준에서 취사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에카르트(⁵³)의 대학 학력에 대한 질문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현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저자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의 역사적 맥락에서 저자는 시간, 장소, 방법이라는 기본 전제를 다시 무시하고 있다. 에카르트는 백여년 전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당시 학업은 오늘날 독일과 한국처럼 제도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저자가 발견하고 분석한 기록 자료와 관련하여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시기의 많은 자료들은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는데, 대부분 소위 독일 필기체로 작성되어 있다. 오늘날 독일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일반’ 독일인들이 이러한 사본을 거의 읽을 줄 모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까? 물론 그런 경우에 그 사실을 밝혔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저자가 분명히 혼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국대학의 독어독문학에서 이런 글씨로 쓰여진 텍스트를 읽기와 쓰기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 글씨를 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 5의⁵³ 학적부 기록을 세 번이나 보아야 했다는 점을 고백한다. 따라서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출생증명서에 있는 왼쪽 상단에 명확한 필체로 쓰인 여백 주석은 다행히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도 10).⁵⁴

그러나 저자는 사용된 기록 자료에 대한 혼란스러운 참조를 주는 바람에 해당 정보가 무가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주 9와 28에서는 O-XIV-187을 참조 지시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기록 번호를 가진 다양한 서류들로 구성된 폴더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48, 49, 50, 52 페이지 등에 이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위 아카이브 번호가 붙은 서류에서 인용된 내용도 있다.⁵⁵ 그러나 이 서류는 아마도 뮌헨 대학교의 이집트학자이자 (인문대?) 학장 알렉산더 샤르프(Alexander Scharff, 1892~1950)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자의 논문에서는 이 편지를 찾을 수 없다 (편지 날짜: 1946년 11월 18일;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은 17쪽 참조).

4. “III. 제 3 제국 시기의 에카르트

1. 교수 에카르트 박사 (Prof. Dr. Eckardt)는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내용과 비평. 이 섹션은 아우구스트 리켈(August Riekel, 1897~1967)이 에카르트의 특별한 언어 재능을 지적하는 말로 시작한다. 저자는 리켈의 말을 한국어로 옮겨서 인용한다: “경성 대학교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쳤다.”⁵⁶

⁵³ LEE 2025, 41 참조.

⁵⁴ LEE 2025, 49 참조.

⁵⁵ LEE 2025, 50, 각주 29 참조.

⁵⁶ LEE 2025, 45 참조.

여기서 저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리켈은 실제로 이렇게 썼다: “교수로서 그는 일본 제국 게이조(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강의했다”⁵⁷ [밑줄은 A.H.가 추가함].

작은 조사들, 즉 ‘로’와 ‘를’에 의하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에카르트스는 이 언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언어들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게다가 저자는 ‘영어’의 번역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오역 외에도, 위 인용문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처리는 학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교수로서 그는 일본 제국 게이조(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강의했다. 참고로 그는 현재 총 18 개 언어에 능통하다.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은 철저한 문헌학적 작업에 대한 탁월한 감각으로 뒷받침된다.

원문에서는 ‘영어’ 다음에 새 문장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단락이 이어진다. 그리고 원문의 ‘참고로’는 저자가 번역한 ‘알려져있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 외에, 저자는 원래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원문에 삽입된 단락을 생략했다. 또한 ‘뒷받침되었다’(과거형!)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뒷받침된다’(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저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는 경성제국대학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쳤으며 총 18 개 언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은 철저한 문헌학적 작업에 대한 탁월한 감각으로 뒷받침되었다.

에카르트스의 박사 학위 취득에 관한 설명 전에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의 박사 학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주제에 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논쟁에 가능한 한 명확한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사진 4 참조).

이 증서에 따르면 에카르트스는 1930 년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조선의 학교 제도』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최우수 성적’(summa cum laude)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도서관에 증빙 사본이 없는 이유로, 가능성 있는 원인에 대한 첫 단서는 학술사학자 울리히 라셰(Ulrich Rasche, *1963)가 제시한다: “20 세기 전쟁과 위기 시기에는 비용 문제로 인해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출판 의무가 여러 차례 유예되어야 했을 때 [...]”.⁵⁸ 에카르트스의 박사 학위 취득 시기는 1930 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시기와 겹친 시기였다. 저자는 에카르트스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전에, 그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경우에도 현명했을 것이다. 박사 학위증은 저자가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진 5 는 1930 년 박사학위 논문의 타자기로 작성된 타이틀 페이지와 서문을 보여준다. 또한 1930 년에 제작된 교정지에서 해당 페이지들이 재현되어 있다 (사진 6). 서문에서 유명한 교육학자 알로이스

57 RIEKEL 1960, 12.

58 RASCHE 2018, 296 참조.

피셔(Aloys Fischer, 1880~1937) 교수가 지도교수였으며,⁵⁹ 교정지 서문에 따르면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한스 마이어(Hans Meyer, 1884~1966) 교수가 공동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앞서 언급한 『코리아니카(Koreanica)』의 출판 목록 중 11 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등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출판 장소와 시기는 “브라운슈바이크 1931 년”으로 표기되어 있다.⁶⁰ 이것은 잘못된 정보는 아니나, 외부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은 인정되지만, 철저한 문헌 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저자가 인용한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기록 보관소 정보⁶¹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에카르트 박사 학위 논문 재출간은 1929 년 리켈 교수의 지도 아래 새로 설립된 교육학연구소의 첫 출판물로 계획되어 있었다.

에카르트가 그 연구소에 관한 논문에서 위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⁶² 당시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에서 리켈을 둘러싼 혼란속에서 실제로 출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 하다 (여기서 암시된 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 쪽 이하 참조).

저자는 도 7⁶³을 가리키며, 에카르트가 자신의 편지 수신자인 안톤 파이프(Anton Pfeiffer, 1888~1957, 바이에른주 의회 의원 등)에게 자신(에카르트)에게 교수 직함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비난한다.

이 비난은 부분적으로만 인용된 서한으로는 매우 약하다. 에카르트는 첫 페이지에서 독일 당국이 그에게 교수 직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뿐이다. 전체 서신을 읽어보면, 이 서신은 주 의회가 에카르트 건에 개입될 경우를 대비해 영향력 있는 주 의회 의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에카르트는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이나 청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서’와 ‘청원서’를 혼동하는 저자가 오해한 바이다.

함께 실은 한국어 번역본에서 몇 가지 부정확한 점이 다시 눈에 띈다.⁶⁴

독일어 원문 “동아시아(한국, 만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 bin in Ostasien (Korea, Mandschurei und Japan) tätig”를 저자는 “동아시아(한국, 만주, 일본)에서 활동했다”로 번역했다.

에카르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덧붙인다: “외무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 auf besondere Veranlassung des Auswärtigen Amtes”. 이 부분이 저자의 번역에는 “외무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로 나온다. ‘요청’과 ‘허가’는 동의어가 아니다! 살펴보면, 이 단어 교체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어 에카르트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요청’은 외무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반면, ‘허가’는 에카르트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번역 오류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진정서와 청원서의 혼동 역시 동일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원문 구절 “해외에 머무는 독일인과 그들의 활동을 위해 / im Interesse des Deutschtums im Ausland”의 번역도 문제가 된다. 저자는 이를 “해외에서의 독일 정신 확산을 위해”로 번역했다. 이는 너무

59 생애 감상에 대해서는 WEIGERT 1998 참조.

60 RIEKEL 1960, 169 참조.

61 LEE 2025, 46~47 참조.

62 S. ECKARDT 1963/64, 320 참조.

63 LEE 2025, 48 참조.

64 LEE 2025, 48~49 참조.

단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 방법이다 (그 외의 중대한 번역 및 인용 오류는 24, 26~28 쪽을 참조 바람).

에카르트가 파이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위의 잘못된 평가와 번역 오류로 인해, 저자가 원문의 내용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자는 이 서신의 2 면과 3 면을 생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 이하, 36 쪽 참조.)

옛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1847~1934)가 명예 교수 직위를 수여한 문제에 관해서는 유물 속에서 간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34년 1월 5일자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사무실에서 발송된 서한이 그러하다. 유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점에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5. “III. 2. 안드레 (Andre) 와 안드레아스 (Andreas)”에 대하여

내용. 저자는 에카르트라는 성(姓)과 함께 사용된 다양한 이름들에 혼란스러워한다. 즉 에카르트의 출생 증명서(도 10)에는 오토 루트비히(Otto Ludwig)라는 이중 이름⁶⁵이 기록 되어 있다. 1909년 사제 서품 후 에카르트는 수도명인 안드레아스를 부여 받았으며, P.[Pater] Andreas Eckardt OSB⁶⁶라는 이름으로 한국 미술사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위 출생 증명서의 필기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수도명을 개인 이름으로 계속 사용했다.

나중에 에카르트는 자신의 이름 안드레아스를 바이에른식 변형인 안드레 (Andre)로 사용했다. 이 이름과 관련해 저자는 프랑스식 형태인 앙드레(André)가 종종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저자는 후베(Huwe)조차도 프랑스식 이름 형태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⁶⁷

비평. 우선 다양한 이름 형태와 관련하여, 저자가 보다 철저한 문헌 조사를 수행했다면 많은 점들이 저절로 설명되고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와 한국어 위키백과의 Eckardt 기사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저자가 귀중한 추가 정보와 참고 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해서 ‘Andre’가 ‘Andreas’의 바이에른식 약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바이에른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독일인들에게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리고 ‘Andre’라는 철자가 틀렸다고 여겨져 묻지도 않고 ‘André’로 변경 시키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저자가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발간된 책자⁶⁸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본 반론의 필자가 기고한 짧은 글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 거기에 ‘André Eckardt’라고 쓰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이 제출한 글에는 원래 ‘Andre Eckardt’라고 쓰여 있었다. ‘André’로 변경된 것은 편집부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한편, 저자가 좀 더 철저한 문헌 조사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출간된 에카르트 전기에 관한 본인의 두 편의 더 상세한 논문을⁶⁹ 발견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는 당연히 올바른 표기인 ‘Andre Eckardt’가 사용되어 있다.

65 일부 저작물에서는 오토 에카르트(Otto Eckardt)가 저자 이름으로도 발견된다.

66 OSB = Ordo Sancti Benedicti (성 베네딕도회)

67 LEE 2025, 48 참조.

68 HUWE 1984 참조.

69 HUWE 1987; HUWE 2002; HUWE 2003 참조.

독일에서도 Eckardt 라는 성에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려면 각 표기 법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에카르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름에 관한 첫 번째 결론은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에카르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으며, 저자의 경우처럼 잘못된 표기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용 (계속). 이화진의 의견에 의하면 에카르트의 이름 변형(Andreas 에서 Andre 또는 André 로)은 그가 나치 과거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며, 다른 말로 이것은 마치 에카르트가 나치 시대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려는 시도라고 추측하게 만든다. 저자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 가지 서류(도 12, 13, 14, 15)를 제시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작성된 도 12에서는 제 3 자의 진술을 통해 에카르트가 나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도 13 과 도 14 서류(둘 다 나치 시대에 작성됨)에서는 에카르트가 사실상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15 서류에서는 전쟁이 끝난지 1 년 후 에카르트가 반박 진술을 제출한다.

1948 년 4 월 24 일자 도 12 에서 오토 우르스프룽(Otto Ursprung, 1879~1960)은 2 년 전 자신이 지정한 에카르트의 나치당 기관지 『Völkischer Beobachter (민족관찰자)』의 기고문들을 언급한다. 우르스프룽에 따르면, 에카르트의 기사에는 Pg. (=Parteigenosse/당원)이라는 약어가 표기되어 있었다.

도 13 은 1934 년 10 월 26 일자 에카르트가 당시 뮌헨 민족학 박물관(현 오대륙박물관) 관장직에 지원한 지원서의 사본이다. 저자의 번역에 따르면, 이 서류에서 에카르트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및 현 정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⁷⁰는 말을 밝혔다.

1939 년 4 월 15 일자 진술서(도 14)에서 에카르트는 자신이 1933 년부터 나치 교사 협회 회원이며 나치당(NSDAP) 회원 자격이 예약된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1946 년 9 월 4 일자 도 15 에서 에카르트는 자신이 나치당(NSDAP)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외 그는 자신의 나치 과거에 관한 대규모 설문지를 뮌헨 대학교와 바이 에른 문화부에 제출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독일 미군 정부(Office of Military Government for Germany, US / OMGUS)는 에카르트에게 교직 활동에 대한 무혐의 증명서를 발급 했으며, 관련 서류 번호는 1946 년 4 월 17 일자 AG210.1 MGBAE 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서류의 내용이다.

또한 에카르트는 이 서류에 자신이 나치 피해자였음을 지적한다. 그는 정치적 박해를 받았으며, 나치 정권에 의해 브라운슈바이크 교육학연구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연구소 부소장 직위를 잃었다고 밝힌다.

아마도 에카르트의 위 서류와 앞에 언급된 이집트학자이자 학장인 샤르프가 쓴 편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샤르프가 “[에카르트의] 설문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는 인용문을 저자의 논문에서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⁷¹

여기서 확인하지 못하는 이 인용문을 통해 저자는 샤르프의 진술 덕분에 에카르트가 아닌 이미룩이 1948 년 뮌헨 대학교의 한국어 강사직을 맡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후배가 주장한,⁷² 에카르트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미룩에게 이 강사직을 양보했다는 말이 틀리다고 말한다.

70 LEE 2025, 51 참조.

71 LEE 2025, 50 참조.

72 LEE 2025, 50 참조.

그러나 특히 샤르프의 원문 서한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말은 추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비평 (계속). 이름 변형에 관한 두 번째 결론은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에카르트⁷³의 나치 과거와 그의 이름 변형을 서로 연결 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것이다.

저자의 주장을 다시 언급하자면, 그는 에카르트가 이름을 ‘안드레아스’에서 ‘안드레’로 바꾸면서 위장 나치에서 비나치로 정체성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³. 이처럼 대담한 주장을 하기 전에, 저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기록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아래 참조).

먼저, 저자가 이용한 도 12 ~ 15 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 12 에 관하여. 본 서류의 보고년은 2 년 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작성자의 기억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Pg.’라는 추가 표기가 실제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우르스프룽이 P. [Pater]와 Pg.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치 사상과 관련이 없는 제목인 “극동의 옛 민속”과 “극동의 음악”이라는 에카르트의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유물에서 타자기로 작성된 사본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나치 사상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암시하지 않는다.

도 13 에 관하여. 이 서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단지 사본⁷⁴일 뿐이며 게다가 공증되지 않은 서류이다. 따라서 에카르트의 친필 서명이 있는 원본 서신이 아니다. 이 사본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본’이라는 용어는 원본과의 일치를 의미 하지만, 여기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제공된 정보는 ‘2 차 정보’이며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저자는 그 원본을 여러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보고 끝에 찾지 못했으면 사본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저자가 이 사본에 포함된 정보를 에카르트의 나치 과거에 대한 핵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함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는 쉽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에카르트가 이 지원서를 정부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며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라는 구호로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간결한 표현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는 너무 간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로, 히틀러 경례가 “당시 의례적으로 사용되던 표현”⁷⁵이었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이었다.⁷⁶ 공식적인 지원서에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같은 문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그 당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에카르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원은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추측의 근거로 저자는 한 서류를 언급하지만, 그 원문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73 LEE 2025, 52 참조.

74 사진 복사본이 도입되기 전에는 원본 문서를 손으로 베껴 쓰거나 타자기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75 LEE 2025, 51 참조.

76 사진 제 7은 장례사의 통지서, 마지막에 ‘하일 히틀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통지서는 에카르트의 장인인 칼 로트 박사(Karl Roth, 1866~1940)의 장례식 때 발송된 것이다. 이 문서는 에카르트의 유물에 포함 되어 있다.

저자는 그의 논문 전체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일한 언급을 한 후, 에카르트에 추가 발언들을 더욱 ‘냉정하게’ 평가한다.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편지는 에카르트가 나치 시대에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⁷⁷ 이런 ‘무자비한 표현’은 사소한 문제가 아닌 잘못된 번역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위의 사본에는 “저의 [에카르트의] NSDAP 및 현 정부와의 연대감”이라고 실려 있다.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했다. “제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및 현 정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⁷⁸이라고 표현했다. 독일어 원문에는 ‘밀접하게’와 ‘사실’이라는 단어들이 없는 것 외에도, ‘연대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 단어 추가와 의미 전체의 변경은 여기서 용납할 수 없는 저자의 학문적 접근 방식의 부주의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러한 부주의함은 에카르트가 ‘정부’라는 단어를 저자는 ‘정권’으로 번역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에카르트의 표현 방식을 독일어 원어민의 어감으로 평가해 보면, 이 연대감의 표현은 분명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심 어린 연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연대감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자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강화하는 ‘밀접하게’이라는 표현을 즉석에서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용은 명백히 왜곡된다. 그리고 에카르트가 실제로 “밀접하게” 연결된 당원이었다면(아래 참조), 왜 그에게 박물관 직책을 맡기지 않았을까?

에카르트가 이 지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의 사적인 생활 사정에 있다. 나치에 의해 브라운슈바이크의 연구소가 폐쇄되고 그에 따른 해임(아래 참조) 이후, 그는 재정적인 곤경에 빠졌다. 이 사실은 바이에른 중앙 주립 기록 보관소(Bayerisches Hauptstaatsarchiv, 기록 번호 BayHStA, StK BayVO 1610)에 보관된 관련 서류로 입증되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 반론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도 14에 관하여, 에카르트의 진술에 대해 우선 덧붙일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거나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제약이 훨씬 적은 자유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에른 역사 사전에는 나치 교사 협회 가입과 관련하여, 강압적 조치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다.⁷⁹

여기서도 에카르트의 진술을 왜곡하여 번역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저는 1933년부터 국가 사회주의 교사연맹 NS-Lehrerbund 회원(번호 238330)이며, NSDAP 가입에 예약되어 있습니다.”라고 썼다. 저자는 이를 “나는 1933년부터 국가사회주의 교육자연맹(NS-Lehrerbund [!]) 소속이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가입예정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⁸⁰라고 번역했다. 에카르트는 “가입에 예약되어 있습니다”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했다. 반면 저자의 “가입 예정자로 등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NSDAP 회원 명부가 보관되어 있는 베를린 연방 기록 보관소에 의하면, 에카르트의 회원 가입 신청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77 LEE 2025, 51 참조.

78 LEE 2025, 51 참조.

79 SCHÄFFER 2006, ‘Gleichschaltung aller Lehrerverbände 1933-1938 (1933~1938 년 모든 교사 협회의 동조화)’ 절 참조.

80 LEE 2025, 51 참조.

도 15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에카르트는 나치와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는데”⁸¹. 이어 원문의 발췌 번역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저자가 사용하는 ‘철저히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과장되어 있어 서류 내용과 맞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에카르트의 순수한 사실에 기반한 서술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앞서 지적된 학문적 부주의와 그대로 이어지며, 여기서도 저자의 간과할 수 없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인상을 남긴다.

에카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비나치화 과정에서 작성한 대규모의 설문지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뮌헨 대학교와 바이에른주 문화부에 여러 번 제출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해당 설문지는 각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저자는 에카르트의 이 힌트를 무시한다. 진정으로 성실한 연구 의도가 있었다면, 저자가 이 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 강조점은 ‘반드시’에 있다. 에카르트에게 제기된 중대한 의혹들을 고려할 때, 저자는 학술적으로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면 이 추가 자료를 그의 연구에 반드시 반영했어야 했다.

미군 당국이 발급하고 문서 번호가 기재된 교육 활동 허가증을 역시 저자는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왜 저자는 이 자료가 아마도 존재하고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가?⁸² 이 자료 역시 도 7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페이지(사진 2)처럼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저자는 위에서 인용한 발췌 번역문 끝에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로부터 나치와의 연관성을 감추려는 에카르트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출판물이나 서신에서 자신을 안드레아스가 아닌 ‘안드레’로 고쳐 부른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⁸³

이는 마치 입증된 사실처럼 읽힌다. 그러나 혐의를 푸는 증거를 무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저자의 추측은 기존 이름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와 변형된 ‘안드레 에카르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터무니없다. 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안드레’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름의 지역적인 변형에 불과하다.

에카르트는 자신이 나치당에 소속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는 첫째, 베를린 연방 기록 보관소의 정보에 의해 대체로⁸⁴ 확인된다.

81 LEE 2025, 51 참조.

82 바이에른 중앙 주립 기록 보관소의 정보에 따르면, 에카르트가 언급한 독일 미군 정부의 교육 활동 허락 증명서가 뮌헨 현대사 연구소(Institut für Zeitgeschichte)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바이에른 중앙 주립 기록 보관소(BayHStA)의 StK Bay VO 1610 폴더(사진 제 8 참조)에 또 다른 유사한 증명서가 존재한다.

83 LEE 2025, 52 참조.

84 베를린 연방 기록 보관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의 80%만 보존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20%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남은 20%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를린 연방 기록 보관소는 해당 주립 기록 보관소, 즉 에카르트의 경우에 바이에른 주립 기록 보관소에서 보충 조사를 권한다. 에카르트에게 1971년에 바이에른주 공로훈장이 수여 되었기에 이 보충 조사가 훈장 수여 전 이미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아래와 참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https://www.bundesarchiv.de/im-archiv-recherchieren/archivgut-recherchieren/nach-themen/benutzung-und-auskunft-aus-der-digitalisierten-nsdap-mitglieder-kartei/>

둘째, 에카르트는 1970년 바이에른 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사진 9 참조). 1969년 7월 31일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에서 발송한 관련 서신(사진 10 참조)에는 헌법보호청의 사전 안전성 확인을 거쳐 에카르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연방 및 주에서도 훈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안전성 검토에는 훈장 대상 후보자가 나치 시대에 고위직을 역임했는지, 또는 나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⁸⁵

이로써 에카르트가 나치 지지자라는 혐의는 명백히 반박되었다. 저자가 에카르트의 생애를 편견 없이 연구했다면, 명예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혐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에카르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가 후원자인 알로이스 피셔와 동료이자 친구인 아우구스트 리켈,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나치 테러의 가혹한 박해를 받을 때 함께 고통을 겪었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저자가 주장하는 나치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와 모순된다.

에카르트는 도 15에서 1932년 나치가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교 산하 교육학연구소에서 직위를 잃었다고 추가로 보고한다. 저자는 에카르트의 피해자 주장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반박하며, 에카르트의 제자 및 그의 전 동료 아우구스트 리켈이 상황을 은폐했다고 비난한다. 이미 알려진 인용문을 여기서 반복한다: “나아가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에카르트가 브라운슈바이크 연구소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고 활동 무대를 잃은 채 슈탄베르크의 집에 칩거하며 개인 연구에 몰두했다는 에카르트의 제자 후베나 동료 리켈의 회고는 에카르트의 삶을 오점 없이 표백하려는 듯 보인다.” 이어지는 난해한 말로 저자는 그의 논문에 마침표를 찍는다: “만약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들은 에카르트와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거나 결코 친밀하게 아는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⁸⁶

쉽게 말해서, 이 삼중 부정을 통해 저자는 에카르트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치 과거에 대한 그의 주장을 강화하고, 에카르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두 사람의 진술을 현실을 왜곡한 것이며, 단지 에카르트를 위한 우정 차원의 호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 방식으로 저자는 다시 그의 불충분한 문헌 조사를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하며, 아래에서 압축적으로 묘사된 역사 맥락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부족한 감수성을 드러낸다. 독일어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을 추가 연구를 위한 영감으로만 훑어봤으면, 저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 초반은 브라운슈바이크와 독일 전체, 그리고 에카르트 개인에게도 중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⁸⁷

히틀러는 1932년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무국적자였던 히틀러는 독일 국적을 갖추지 못해 출마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치당의 지원으로 그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마지막 시도 중 하나는 히틀러를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교(Tech-

85 연방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관련 시민질의에 대한 답변(2023.01.04., 2면)에서 1965년 이후부터 훈장 수여 전에 해당 인물에 대해 “과거 나치 고위직 수행 경력 또는 나치 시대에 저지른 부당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훈장 수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https://fragdenstaat.de/files/foi/765473/anfrage-bundesprasident.pdf?download> [2025.08.15].

86 LEE 2025, 52 참조.

87 그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JAEGER 2022, 216~219; MENZEL 2015. 브라운슈바이크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은 MENZEL 2014를 참조.

nische Hochschule)⁸⁸의 ‘유기적 사회학 및 정치학’ 교수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나치당은 1930년부터 브라운슈바이크 자유주의 정부에 참여하여 내무부 장관과 국민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독일 전역에서 유일무이한 기회를 활용하여 히틀러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치당이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의 아우구스트 리켈 교수직을 노린 것은 분명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민주당(SPD) 당원이었던 리켈은 1928년 교육심리학 및 일반교육학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리켈은 1929년 브라운슈바이크에 새로 설립된 교육학연구소를 겸직으로 맡았다. 그는 에카르트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SPD 당원인 리켈은 나치에게 눈엣가시였으며, 나치는 1931년 그의 해임을 추진했다. 에카르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브라운슈바이크에 1년 더 머물렀지만, 리켈 교수와 직원들, 교사진이 수많은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힘들게 구축해 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⁸⁹

히틀러는 교수직을 얻지 못했다.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은 히틀러가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1932년 2월 25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공무원 직위를 얻었고, 동시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여 1932년 3월 13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 1930년경 에카르트가 겪어야 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 매우 간략한 설명으로도 리켈과 후베가 에카르트의 전기를 의도적으로 미화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나치 시대와 그 여파로 자신과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던 리켈의 말을 저자가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나치와의 끔찍한 경험 이후 에카르트에게 고향과 집으로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리켈은 1956년에 명예 회복되었다. 이를 통해 에카르트도 간접적으로 명예를 회복했으며, 그가 나치 시대의 피해자였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다.⁹⁰

또 다시 저자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앞서 일본 점령 하에서 『조선 미술사』가 저술된 상황도, 에카르트의 저자로서의 동기, 또한 브라운슈바이크에서 나치의 악랄한 행적이 자행되던 시기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에카르트가 자신의 이름 변형을 통해 나치 과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는 에카르트 개인과 그의 생애 업적, 그리고 한국과 독일을 위한 그의 중요성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다.

6. 이름 변형의 실제 이유

안드레아스에서, 같은 이름의 바이에른식 변형인 안드로로 이름이 변형된 이유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매우 간단하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카르트는 1939년에 결혼했다. 그의 바이에른 출신의 아내는 그를 ‘안드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미 나치 시대에 ‘안드레아스’는 덜 공식적으로 들리는 ‘안드레’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은 나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40년 그의 아내를 위해 지은 생일 시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진 제 11 참조).

88 1968년부터 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

89 ECKARDT 1963/64, 320, 321 참조.

90 에카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민족들에게 가져온 고통을 보고 문화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평화를 보장하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는 SAFO(의미)이라고 하는, 배우기 쉬우면서 문화 간 소통을 간소화할 문자이다. 현재 집필 중인 관련 박사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자는 국제적으로 널리 주목을 받았다.

에카르트에 독신 생활은 이렇게 끝났고, 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물론 마음속으로 에카르트는 여전히 똑같았다. 그의 유물 중에는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 온 한 한국인 옛 제자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에카르트는 수십년 전 만주에서 그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한국인의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스승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그 제자의 편지 중 일부이다 (사진 제 12 참조):

저는 50년전 일을 생각할때 까마득한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제와 같은 마음입니다 박사님께서 八道구 (팔도구)에 계실 때 농촌 교회를 그 복음에 심방하시고 얼굴이 빨갛게 해별에 끄울고 땀을 흘리시고 오셔서 저의 사범학생들을 교수 하여주시던 그열심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서 현하옵니다.

Hyun Chul Chung
1969. 1. 6

III. 결론

논의된 저자의 논문은 학술적인 저작물로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 형식적 구성은 즉 목차, 각주,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성, 문헌 목록, 논의된 기록 자료에 대한 원본 삽화 등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성의 심각한 결여가 눈에 띈다.

잘못된 출발점과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저자는 에카르트가 저명한 한국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던 이전의 무조건적인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1920년대 한국에서 저술된 에카르트의 저작물들을 1930년대 독일의 회고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잊어 버렸다.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는 적어도 서양에서는 매우 폭넓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갖춘 최초의 저작으로 평가받으며, 발표된 결과는 오랜 세월 동안 에카르트가 직접 답사한 현장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바로 이 저작물을 통해 에카르트는 한국 미술과 문화를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문화, 미술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세계 문화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 에카르트는 한국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했던 시기에 이 결과를 독일어와 영어로 세상에 알리면서 그는 한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강화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만약 에카르트의 저서 출간 100년 후, 한국 미술사학에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면, 책임감 있는 연구 행동을 취하려는 미술사학자인 저자는 에카르트의 미술사에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했을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진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에카르트는 『조선미술사』에서 그때까지 한국 미술과 문화를 무시해 온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자가 처음부터 무조건 에카르트를 비판하는 독일 학자들의 편에 선다면 학술적인 진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일 미술사학계에 외부인인 에카르트의 저작물을 두고 일부 비평가들이 환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한다. 한국 미술사학자인 저자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부정적 평가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동아시아학계에서 나온 선의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에카르트 저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모든 명백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의도는 에카르트 작품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접근 방식에 숨겨진 논리는 모순적이고 수수께끼 같다.

저자는 그의 논문 제목에서 에카르트의 학술 활동과 그에 대한 독일 미술사학계의 평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제를 간략히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검토의 초점은 제목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곳에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주장하고 싶은, 에카르트의 나치 시대 연루를 밝히고, 이를 통해 에카르트의 생애와 저서를 의심스럽게 보이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점 변화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섹션의 분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이를 위해 그의 논의를 나치 시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까지 상당히 확장한다. 이러한 시간적 확장 및 주제적 전환으로 인해 제목과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학술 논문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저자는 평가를 나치 시대로만 한정하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에카르트의 업적을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즉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945년 이후 한국을 위해 이루어진 에카르트의 학술적·예술적 성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원칙은 저자의 논문에 또 다른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출처 자료에 대한 비전문적인 처리. 저자는 이전에 간과되었던 기록 자료들을 활용하여 안드레 에카르트의 삶과 저작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 출처 자료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관념은 - 안타깝게도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지만 - 완전히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그의 논문에 전체로 실은 세 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서신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출처에 물어봐야 하는 육하원칙에 대한 모든 답변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목적으로 서신을 썼는가 하는 것이다. 즉, 작성자, 그의 서명, 수신자 및 날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학술적 목적에는 이 자료가 사실상 무가치하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서신의 대상, 목적, 이유 및 방식(무엇,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을 고려할 때 그 신뢰성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목적은 서신에서 직접 유추할 수 있다. 제3자들이 말한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그의 동아시아 언어 지식에 대한 수많은 극히 비하적인 평가 및 악의적인 소문 등이 언급되어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비방성 발언들을 주저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의도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학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다!

역사적 출처 자료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맥락을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저자 논문의 전반적인 단점을 드러낸다. 저자가 관련 주제에 대해 최소한의 문헌 조사라도 수행했더라면, 원래 에카르트를 위해 파려고 했던 여러 함정에 오히려 자신이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에카르트가 1934년 당시 뮌헨 민족학 박물관에 보낸 지원서를 근거로 에카르트가 나치 정부와 ‘밀접한’(!) 연루되어 있다는 비난을 제 III 부부터 가하면서 저자에게 상황은 ‘그로 테스트’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자는 ‘밀접한’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내어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 서류가

나치 시대에 에카르트가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었음을 증명한다는 저자의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은 사본으로서 아무런 증거적 가치가 없는 서류에만 근거하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오토 킴멜을 에카르트의 완전히 결여된 학문적 수준과 독일 학계가 그의 『조선미술사』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주요 증인’으로 제시한다. 문제는 저자가 킴멜에 대해 충분히 알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킴멜은 오늘날 나치 정권과의 극히 유죄한 연루로 비난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저자의 논증 방식은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사전 문헌 조사를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저자가 역사 출처 자료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에카르트를 비난하고 있는 또 다른 점에서도 드러난다. 즉, 저자는 에카르트가 대학 학위 과정만으로는 미술사 저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뮌헨 대학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에카르트의 학업 기록을 조사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형인 안톤 에카르트의 학업 기록을 사용한 것이다.

저자는 에카르트가 『조선미술사』를 저술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자신은 출처 자료의 학술적으로 정확한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인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무런 관심도 없다. 여기에 더해 독일어 텍스트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수많은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번역이 있다. 이것은 학술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출처 자료 사용에 있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무시하는 태도는 저자가 에카르트의 ‘사적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다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자가 말하는 ‘사적 자료’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에카르트가 1946년 자신의 비나치화에 관해 뮌헨 대학교에 공식 제출한 서류(도 15)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서 그는 미군정의 허락 증명서와 관련 문서 번호를 알리고 있다. 또는 에카르트가 작성한 한 서류에 첫 페이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고려되지만 중요한 정보를 담은 그 다음 페이지들이 어떤 이유로 생략되어 있을까? (도 7 / 사진 제 2를 참조).

저자는 그 안에 담긴 단서를 추적하고 신뢰성을 재확인했어야 했지만, 이것을 그냥 소홀히 했다. 분명히 해당 서류가 저자의 눈에는 ‘사적 자료’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에카르트가 그걸로 자신의 나치 과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으로 간단히 일축해 버렸다. 그리고 에카르트의 생애를 알고 있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전 동료이자 친구, 전 제자이자 유물 상속자인 사람을 나치 정권과의 만남 이후의 에카르트 생애를 묘사한 동기에 대해 ‘떴떳하지 않은’ 미화이라고 단번에 비난하며, 다른 말로 이 동기는 저자에게 처음부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나치 시대의 어두운 점들’을 에카르트에게서 ‘씻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다시 모순에 걸리고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자는 그 기이한 서류(도 2)의 날짜를 1934년 11월 23일로 기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나치 시대에 작성된 것이며, 그 작성 방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저자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는 에카르트를 은폐 나치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 나치 시대의 서신에서 에카르트는 완전히 ‘파멸’당한다. 이런 일은 나치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나치 동지에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저자가 출처 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는 이 깊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중함, 주의, 역사 출처 자료를 다룰 때의 세심함, 공정성, 진술의 검증, 인격권 존중, 책임감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문적 원칙들을 무시하는 정도는 이미 말했듯이 경악스럽다. 저자의 연구 결과는 에카르트와 그의 삶과 업적을 완전히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준다.

저자가 동료이자 친구인 리켈과 제자 후베에게, 저자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학문적 자격을 여러 번 입증한 이들에게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한 동기와, 에카르트에게 ‘떴떴하지 않은’ 친분 관계를 나타내 주었다는 동기를 묻는 반문을 저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저자의 동기는 무엇인가? 모든 부정적이거나 불분명한 점들을 편향된 방식으로 오로지 에카르트에게만 돌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사적 자료’를 단번에 위조로 치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동기 때문일까? 저자는 에카르트가 자신의 이름 변형을 위장 수단으로 사용하여 나치 과거를 숨겼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비난은 생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저자는 에카르트에게 비난하는 은폐 원칙을 자기 자신의 글에서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질과 연관되는 학술 논문이라는 이름 아래, 저자는 한 개인에 대해 입증된 바와 같이 철저한 학술적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기껏해야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솔함으로 인해 한-독 관계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처럼 저자는 명예를 훼손하는 논문을 발표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로써 저자의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이화진 논문 맨 아래 부분에 제시되는 편집정보에 의하면, 동료 심사 (peer review) 절차는 2025 년 5 월 24 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분명히 매우 피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반론의 저자는 한국학 연구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작업을 일찍부터 높이 평가해왔지만 저자의 논문은 이 발행 기관에 명예로운 연구 작업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지원은 잘못된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Abstract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to the biography of Andre(as) Eckardt (1884–1974), the doyen of German and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with the help of materials from public archives is a new project that is fundamentally welcome in terms of scientific progress, and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rticle under discussion here.

It would be a pleasure to certify that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appropriately. Unfortunately, however, this is not possi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Basic knowledge of how to handle archival materials correctly is, of course,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scientifically sound results. However, if one, like the author, mistakenly believes that all material from public archives is "official material" that can be used without any validation and is therefore entirely credible, then the existence of this basic knowledge is questionable. If, as in the article, the contents of a completely anonymous letter are blindly accepted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recipient, date, or purpose, then this is untenable as a scientific method.

Furthermore, informations from archival materials must be understood in context in order to be correctly grasped. This requires tho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aspect of basic knowledge in dealing with archival materials is also a major shortcoming of the article.

To cite just one basic example, the author accuses Eckardt of collusion with the German Nazi regime. In all (!) of his publications on Korea, Eckardt portrayed Korean culture as independent and autonomous from China and

Japan. A person like Eckardt, with his unconditional attachment to Korea, did not fit in at all with the political stance of the Nazi regime, which cooperated with Japan and recognized its territorial claims in East Asia, for example in the Tripartite Pact. This basic fac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nd taken into account by the author. But she completely failed to do so.

Even more serious is the fact that the author of the article does not follow up on references to further materials in archives, deliberately omits information from existing materials, misrepresents the content of German-language materials in the Korean translation, and labels statements by third parties with direct reference to Eckardt as false statements without proof. Are ethical principles of scientific work taken into account here?

The number of archives visited by the author in Germany is limited to four or five. Research in additional archives would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article. In conclusion, the article unfortunately cannot be recognized as a serious scientific achievement.

주제어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조선미술사, 일제강점기, 나치 시기, 독일의 한국학, 기록 보관소, 역사출처자료

Keywords

Andreas Eckardt, History of Korean Art,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Nazi period, Korean Studies in Germany, Archive, Historical Source Material

참고 문헌

- BAUER 2011. Wolfgang Bauer, “Vorwort”, in: Mirok Li, *Der Yalu fließt: Eine Jugend in Korea*, Kyu-Hwa Chung 편집, Sankt Ottilien, 4 판 2011, 5~8.
- Bilanz einer Freundschaft: Hundert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hrsg. Komitee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Bonn 1984, 119 p.
- BRÄSEL 2025. Sylvia Bräsel, „Mirok Li: 1897–1950“ (<https://www.dr-sylvia-braesel.de/koreana-erfordensia/kulturaustausch-deutschland-korea/mirok-li/> [2026.02.05]).
- CHÖN 2015. 전익진, „100 년 전 독일인 신부가 모은 한반도 식물표본 돌아오다”, 『중앙일보』 2015.04.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674258> [2025.09.15]).
- CHÔNG 1938. 정희준, “에카르트와 한글”, 『한글』, Vol.6, No.8, 1938, p. 6–7.
- CLAEYS 1929. Jean-Yves Claeys, “Andreas Eckardt: A History of Korean Art”, in: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29/1929, 409~410.
- D.C.F. 1930. D.C.F., „Korean Art“, in: *Manchester Guardian*, Febr. 11, 1930, 7.
- ECKARDT 1910. Anton Eckardt, *Die Baukunst in Salzburg während des XVII. Jahrhunderts*, Strassburg 1910 (Studien zur deutschen Kunstgeschichte, 127), 148 p.
- ECKARDT 1923. Andreas 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 朝鮮語交際文典, 권 1: [주 저서], 422 p.; 권 2: 附註解, 206 p., Heidelberg 1923.
- ECKARDT 1928. Andreas Eckardt, *Der 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Tokyo/Leipzig 1928, 20 p.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MOAG], XXII, C, C1–C20).
- ECKARDT 1929 a.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1929, 225 p.
- ECKARDT 1929 b. Andreas Eckardt, (A) *History of Korean Art*, transl. J.M. Kindersley, London 1929, 225 p.
- ECKARDT 1930. Andreas Eckardt, *Das Schulwesen in Korea* (Diss., Univ. Würzburg), Würzburg 1930.
- ECKARDT 1930 a.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usik*, Tokyo/Leipzig 1930, 63 p.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MOAG], XXIV, B).
- ECKARDT 1950. Andre Eckardt, *Wie ich Korea erlebte*, Frankfurt/Main 1950.
- ECKARDT 1955. Andre Eckardt, *Die Ginsengwurzel: Koreanische Sagen, Volkserzählungen und Märchen; während eines zwanzigjährigen Aufenthalts in Korea gesammelt*, Eisenach 1955, 164 p.
- ECKARDT 1963/64. André [Andre] Eckardt, „Das ehemalige ‚Internationale Forschungsinstitut für Erziehungswissenschaften‘ in Braunschweig“, in: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Geschichtsunterricht* 9/1963/64, 318~321.
- ECKARDT 1971. Andre Eckardt, *Wörterbuch der koreanisch-deutschen Sprache*, Heidelberg 1971, 331 p.
- ECKARDT 1995. 안드레·에카르트, 『朝鮮美術史』, 한영대 역, Tōkyō 1995, 406 p.
- ECKARDT 2003. 안드레 에카르트,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조선 미술의 의미를 밝혀 알린 최초의 통사』, 권영필 역, 파주 2003, 390 p.
- ECKARDT 2010. 안트레 에카르트,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파주 2010. (ECKARDT 1950 역본).
- ECKARDT 2025. ECKARDT 2025.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hlungen: Zwischen Halla- und Päk-tusan*, St. Ottilien 2025 (1928 년도의 중판), 140 p.
- FISCHER 1910/1911. Adolf Fischer, „Über koreanische Kunst“, in: *Orientalisches Archiv: Illustrierte Zeitschrift für Kunst, Kulturgeschichte u. Völkerkunde der Länder des Ostens*, 1/1910/1911, 149~158.
- FRANZ/LUX 2018. Eckhart G. Franz, Thomas Lux, *Einführung in die Archivkunde*, Darmstadt, 9 판 2018, 209 p.
- HA 1974. 하병구, 『韓獨辭典』, 서울 1974, 640 p.
- HENDERSON 1982. Gregory Henderson, „Vorwort zur Bibliographie“, in: R. Andreas Domschke, Rudolf Goosmann, *Korea-Bibliographie I: Verzeichnis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1655–1949*, München 1982 (Veröffentl. d. Sejong-Bibliothek d. Seminars f. Oriental. Sprachen bei d. Univ. Bonn. Reihe C, Dokumentationen, Bd. 1), VII~XI.
- HOWELL/PREVENIER 2004. Martha Howell, Walter Prevenier, *Werkstatt des Historikers: Eine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n Methoden* (From reliable sources, dt.), Köln 2004, 261 p.
- HUWE 1984. Albrecht Huwe, „André [Andre] Eckardt: Deutschlands erster Koreanist“, in: *Bilanz einer Freundschaft: Hundert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onn 1984, 39~40.
- HUWE 1987. Albrecht Huwe, „Andre Eckardt – eine biographische Skizze“, 『東西文化의 만남: 靑巖 權赫冕教授 回甲紀念論文集』, 서울: 普成 1987, 587~596.

- HUWE 1995. Albrecht Huwe, „Korea“, in: *Lexikon des gesamten Buchwesens*, Stuttgart ²1995, 제 4 권, 315~318.
- HUWE 2002. Albrecht Huwe, „Andre Eckardt (1884~1974): Leben und Werk des Nestors der internationalen Koreawissenschaften“, in: Hartmut Koschyk (hrsg.), *Begegnungen mit Kim Dae-jung: Korea auf dem Weg zu Frieden, Versöhnung und Einheit*, München 2002, 215~227.
- HUWE 2003. 알브레히트 후베, “안드레 에카르트(1884~1974): 해외 한국학 창시자의 생애와 업적”,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향한 길』, 하르트무트 코식 編著, 김소연 譯, 서울: 한림 2003, 246~258 [HUWE 2002 의 한국어 번역본].
- HUWE/VAN STEPHOLD [2024]. Albrecht Huwe, Wolfram van Stephold, „Zum 140. Geburts- und zugleich 50. Todesjahr von Andre Eckardt (1884~1974) =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4) 탄생 140 주년과 [서거 50 주년을 맞아서], in: *Korea.net* (<https://german.korea.net/Events/Overseas/view?articleId=19825> [2025.08.15]).
- JAEGER 2022. Lars Jaeger, *Emmy Noether: Ihr steiniger Weg an die Weltspitze der Mathematik: Biografie*, Konstanz 2022, 271 p.
- J.B., „A. Eckardt, A History of Korean Art“, in: *Ars asiaticus*, 6/1929, II.
- KÜMMEL 1921. Otto Kümmel, *Die Kunst Ostasiens*, Berlin 1921 (2 판은 1922), 42 p., 다수의 그림.
- KÜMMEL 1929. Otto Kümmel, *Die Kunst Chinas, Japans und Koreas*, Wildpark-Potsdam 1929, 198 p.
- LAMMERT 2022. Mattes Lammert, „KÜMMEL Otto (DE)“, in: *Répertoire des acteurs du marché de l'art en France sous l'Occupation, 1940–1945*; (<http://agorha.inha.fr/detail/597> [2025.08.15]).
- LEE 2025. 이화진,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를 다시 읽다: 그의 학술 활동과 1930 년대 독일 미술사학계의 평가 – Rereading Andreas Eckardt: His Scholarly Work and Its Evaluation in the German Art History Discourse of the 1930s“, 『미술사학보』 64/2025, 35~56. (<http://dx.doi.org/10.15819/rah.2025..64.35> [2025.07.16]).
- LI 1946. Mirok Li, *Der Jalu fließt: Eine Jugend in Korea*, München 1946, 219 p.
- MENZEL 2014. Ulrich Menzel, *Die Steigbügelhalter: Annotierte Chronik zur Einbürgerung Hitlers in Braunschweig*, Braunschweig 2014, 324 S. (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 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 Forschungsberichte aus dem 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 (ISW), Nr. 114); (https://leopard.tu-braunschweig.de/servlets/MCRFileNodeServlet/dbbs_derivate_00035561/Menzel-BlaueReihe114.pdf [2025.08.09]).
- MENZEL 2015. Ulrich Menzel, „Die Einbürgerung Hitlers im Freistaat Braunschweig und deren Konsequenzen“, in: *Jahrbuch 2014 der Braunschweigischen Wissenschaftlichen Gesellschaft*, Braunschweig 2015, 38~59; ([https://www.ulrich-menzel.de/texte/unveroeffentlicht/Hitler\(BWG\).pdf](https://www.ulrich-menzel.de/texte/unveroeffentlicht/Hitler(BWG).pdf) [2025.08.09]).
- NACHOD 1929. Oskar Nachod, „Eckardt, Andreas: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 in: *Ethnologischer Anzeiger* II/1927/1929, 271~273.
- RASCHE 2018. Ulrich Rasche, „Wissenschaft, Praxis und Prestige: Zur Geschichte von Dissertation und Promotion“, in: *Forschung & Lehre*, 4/2018, p. 294~296; (<https://www.forschung-und-lehre.de/karriere/wissenschaft-praxis-und-prestige-508> [2026.01.10]).
- RIEKEL 1960. August Riekel (hrsg.), *Koreanica: Festschrift Professor Dr. Andre Eckardt zum 75. Geburtstag (21. Sept. 1959)*, Baden-Baden 1960, 184 p.
- SCHÄFFER 2006. Fritz Schäffer, „Nationalsozialistischer Lehrerbund (NSLB), 1929-1943“, in: *Historisches Lexikon Bayerns* 30.06.2006; ([https://www.historisches-lexikon-bayerns.de/Lexikon/Nationalsozialistischer_Lehrerbund_\(NSLB\),_1929-1943](https://www.historisches-lexikon-bayerns.de/Lexikon/Nationalsozialistischer_Lehrerbund_(NSLB),_1929-1943) [2025.08.03]).
- WALRAVENS 1987. Hartmut Walravens, „Otto Kümmel: Streiflichter auf Leben und Wirken eines Berliner Museumsdirektors“, in: *Jahrbuch Preußischer Kulturbesitz*, Bd. 24/1987, 137~149.
- WEIGERT 1998. Hans Weigert, „Aloys Fischer – Ein Wegbereiter der modernen Pädagogik“, in: Bärbel Kleindorfer-Marx (hrsg.), *Oberpfalz und Böhmen: Begegnungen über Grenzen, Festschrift zum 32. Bayerischen Nordgautag in Furth im Wald*, Kallmünz 1998, 173~177; (https://oberpfaelzerkulturbund.de/wp-content/uploads/2016/09/32.NGT-Seite-173_178.pdf [2025.08.03]).
- YI 2013. 이상규, “정희준“, 『디지털영천문화대전』, 2013; (<https://yeongcheon.grandculture.net/yeongcheon/toc/GC05101439> [2026.03.01.]).
- YI 2015. Yi Ch'ölho, „Toraon paengnyŏn chŏn Hanban-do singmul p'yobon konggae“, in: *KBS News*, 29.04.2015 (<https://www.youtube.com/watch?v=jeiAUx4B3pQ> [15. 09. 2025]).

ZIMMERMANN 1895. Ernst Zimmermann, *Koreanische Kunst: mit 20 Tafeln, sowie Textillustrationen vorwiegend nach Gegenständen der Sammlung des H. Konsul H. C. Eduard Meyer in Hamburg*, Hamburg [1895], 22 p., 20 도.

부록 : 사진 및 이화진 논문에서 복사한 ‘도’에 대한 목록

사진 목록

사진 1 : 독일 박물관 스틸거 이사장의 감사편지, 1971 년 12 월 3 일 (원본과 한국어 번역)	32
사진 2 : 안톤 파이퍼 박사에게 보낸 3 장으로 된 편지, 1929.11.19.	32
사진 3 : 형제의 이름을 등록한 안드레 에카르트 가족 관계 등록부 (발췌).	33
사진 4 :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인문대학 박사 학위증, 1930.	33
사진 5 :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박사논문, 타지기 사본, 1930. (첫 페이지 및 서문)	33
사진 6 :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박사논문, 교정지, 1930. (첫 페이지 및 서문)	34
사진 7 : ‘하일 히틀러! 경례가 실린 장례사 서신, 1940.01.22.	34
사진 8 : 허락 증명서 (사본), 바바리아 본부 지역 군사 정부, 날짜? 입국 스탬프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 1945 년 7 월 28 일.	35
사진 9 : 바이에른 공로훈장 수여증, 1970 년 6 월 8 일.	35
사진 10: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 훈장 수여 동의서, 1969 년 7 월 31 일.	35
사진 11 : 부인 리아 에카르트를 위한 생일 시, 1940 년 8 월 22 일.	35
사진 12 : Hyun Chul Chung 옛 제자의 편지, 1969.01.06.	36

이화진 논문에서 복사한 ‘도’에 대한 목록

도 2 : 익명의 서신, 날짜?	37
도 13 : 에카르트 서신 (사본), 1934 년 10 월 26 일.	37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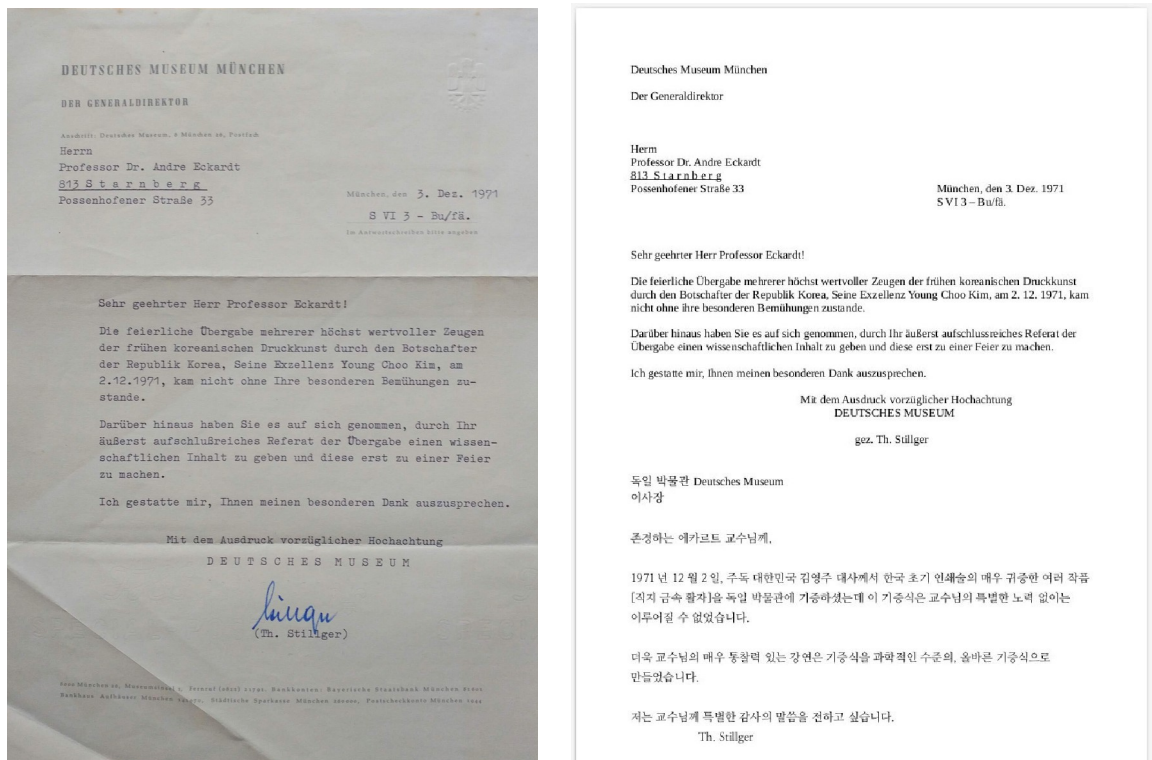


사진 1 : Th. 스틸거 이사장의 감사장, 뮌헨 독일 박물관, 1971 년 .
(원문 및 한국어 번역)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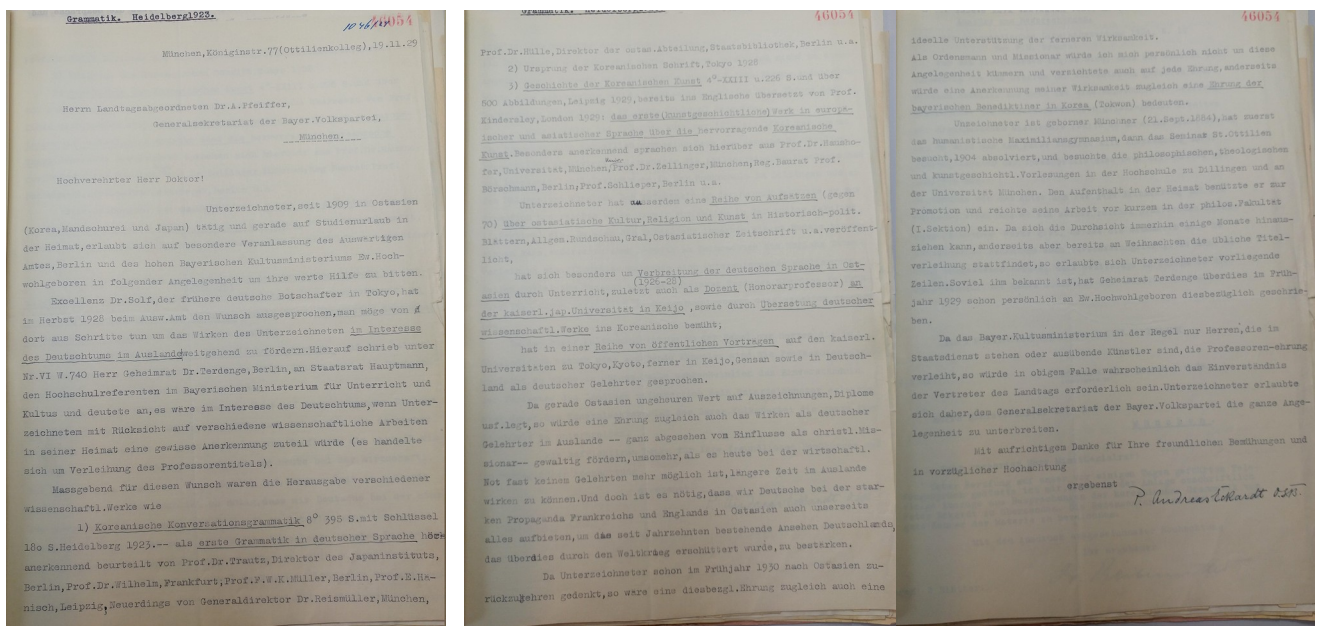


사진 2 : 안톤 파이퍼 박사에게 보낸 3 페이지 분량의 편지 . 1929.11.19
(BayHStA, MK 36653)

2 Meine Personallien

Familienname: Eckardt

Alle Vornamen (Nachname unterstrichen): Alta Ludwig Andre

Geboren am 27. Sept. 1884 um 1/2 8 Uhr

in Münster

als 2. Kind des Prof. u. Kunstmalers
Johann Nikolaus Eckardt

und seiner Ehefrau Barbara
geborene Ber

Staatsangehörigkeit: Preuss. Glaub.-Bek.: r. Kath.

wohnhaft: Münster

Beschmifter:

1. <u>Anton</u>	geb.	1	geft.	1
2. <u>Ber</u>	geb.	1	geft.	1
3. <u>Ber</u>	geb.	1	geft.	1
4. <u>Michael</u>	geb.	1	geft.	1
5.	geb.	1	geft.	1
6.	geb.	1	geft.	1
7.	geb.	1	geft.	1
8.	geb.	1	geft.	1

Dein stirbt, Sippen sterben,
Du selbst stirbst wie sie;

사진 3 : 형제의 이름 (안톤 , 도라 , 미카엘) 을 기록한 안드레 에카르트 가족 관계 등록부 (발췌).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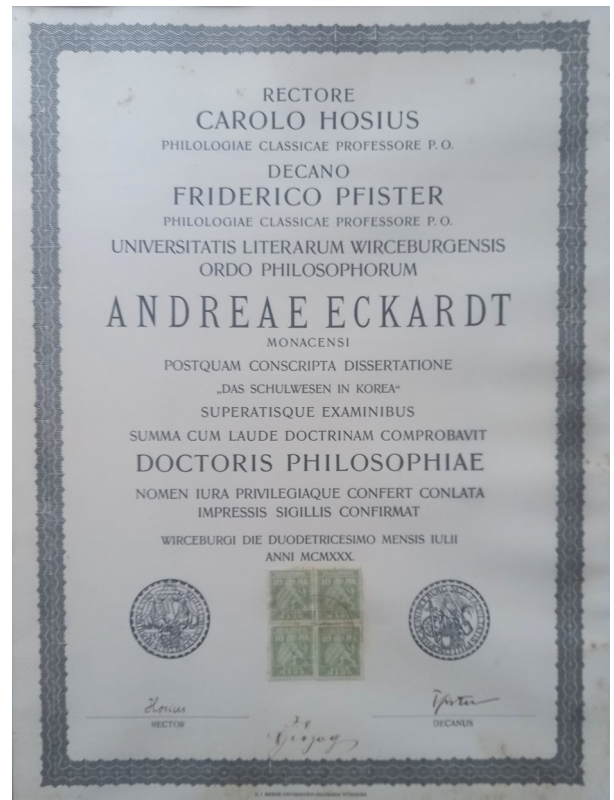


사진 4 :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
인문대학 박사 학위증, 1930.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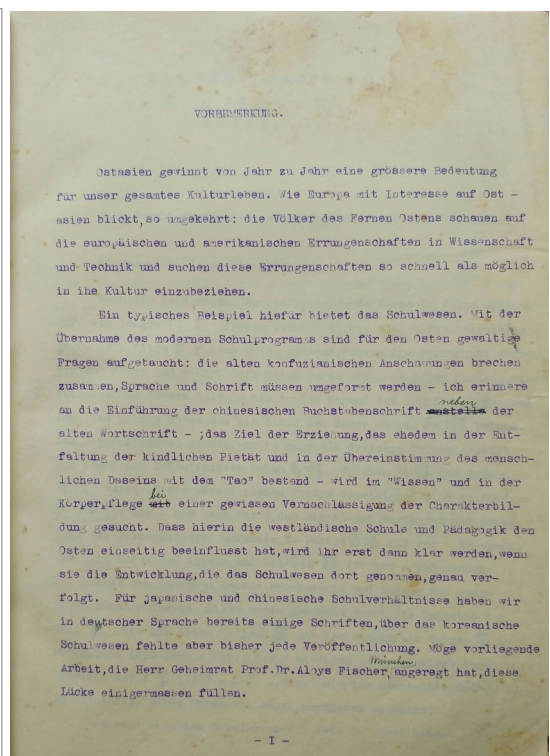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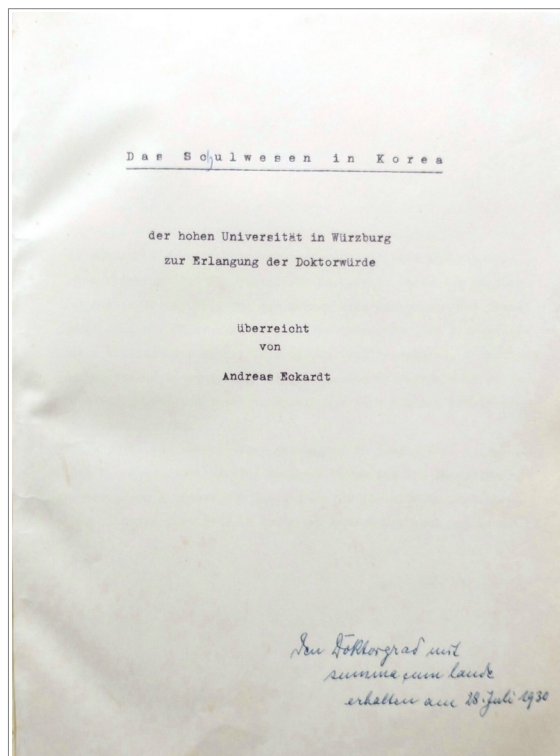


사진 5 :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박사논문 , 타자기 사본 , 1930. (첫 페이지 및 서문)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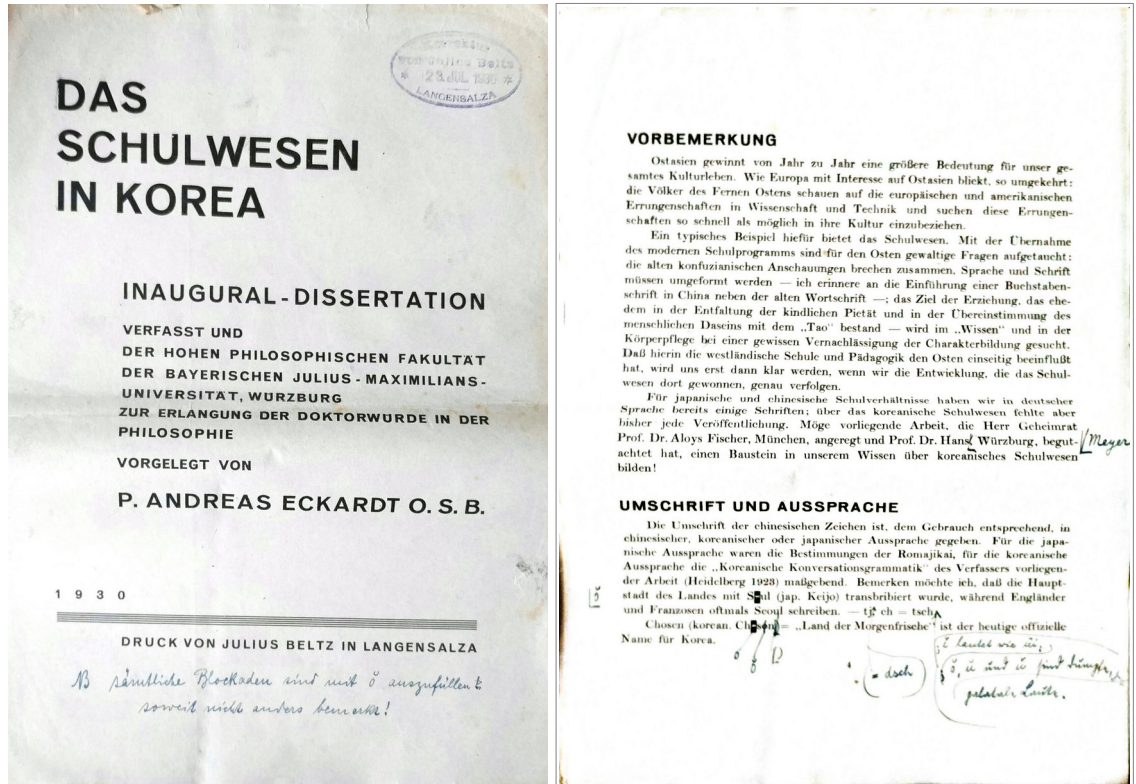


사진 6 :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박사논문, 교정지, 1930. (첫 페이지 및 서문)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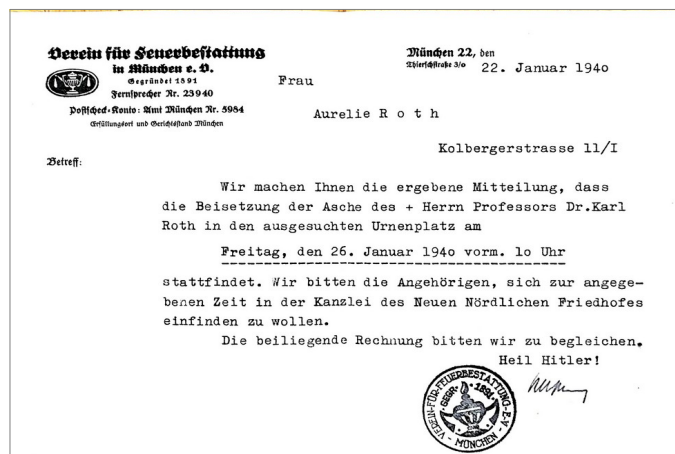


사진 7 : '하일 히틀러!' 경례가 실린 장례사 서신, 1940.01.22.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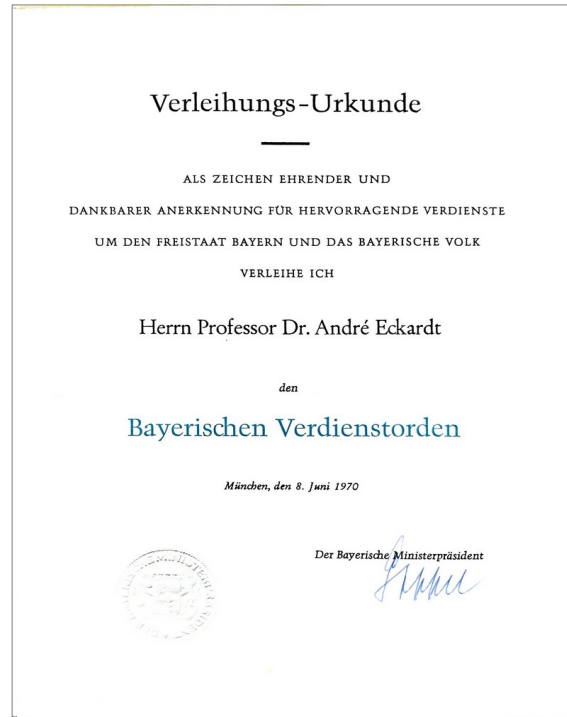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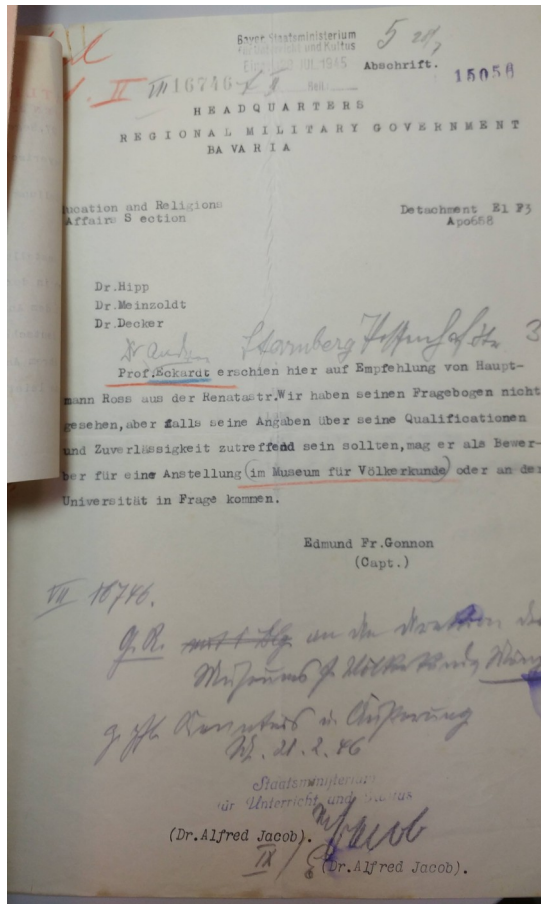


사진 9 : 바이에른 공로훈장 수여증, 1970 년 6 월 8 일 .
(에카르트 유물 © A. Huwe)

사진 8 : 허락 증명서 (사본), 바바리아 본부 지역 군사 정부, 날짜?
입국 스탬프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 1945 년 7 월 28 일 .
(BayHStA, StK BayVO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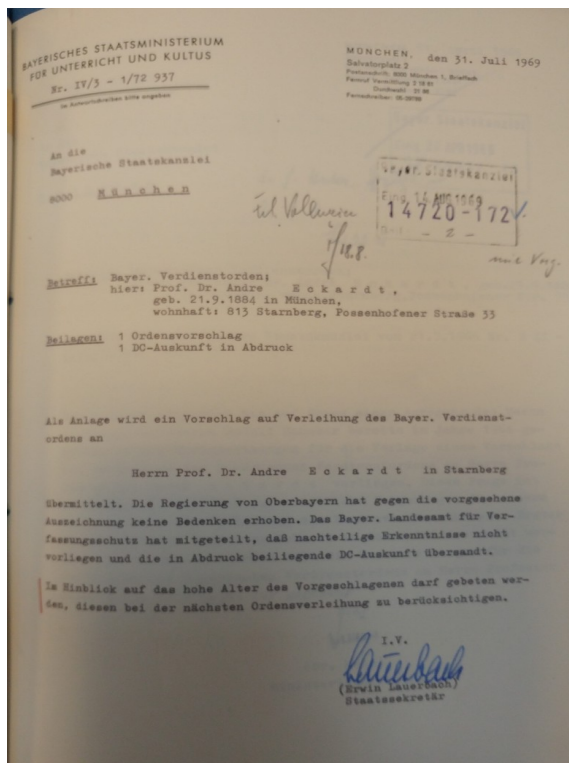


사진 10 :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 훈장 수여 동의서,
1969 년 7 월 31 일 .
(BayHStA, StK BayVO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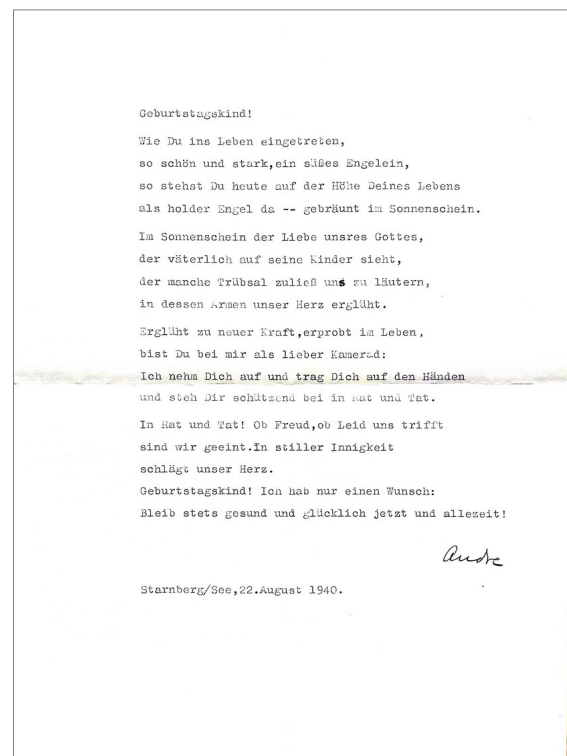


사진 11 : 부인 리아 에카르트를 위한 생일시,
1940 년 8 월 22 일 .
(에카르트 유물 © A. Hu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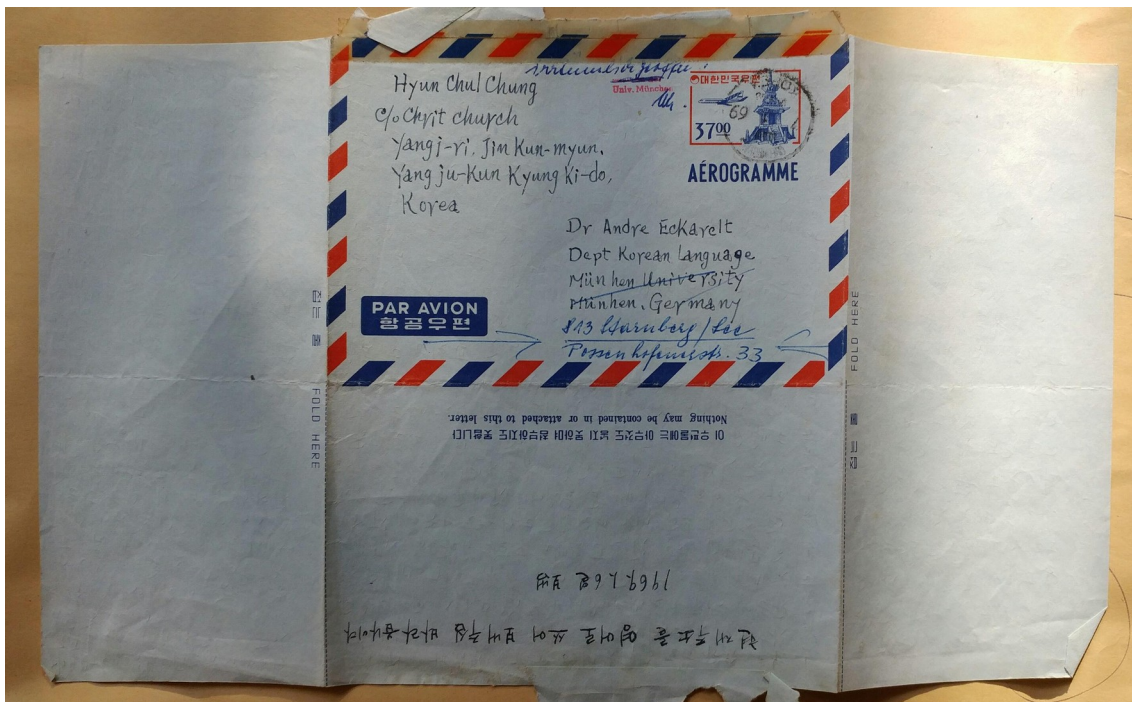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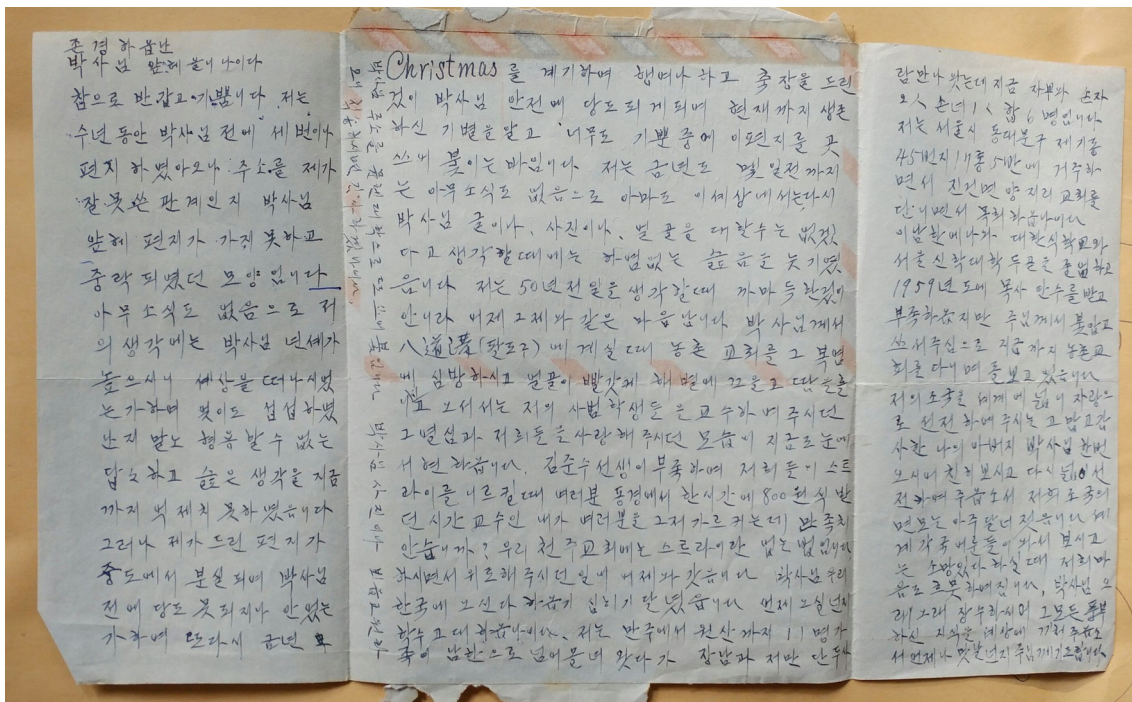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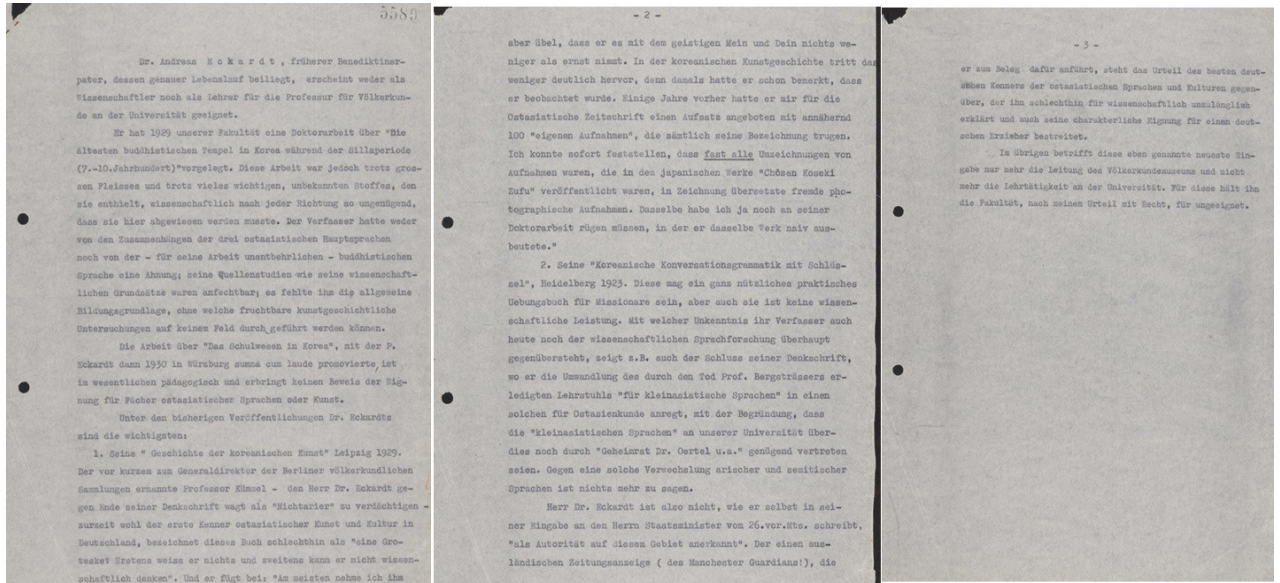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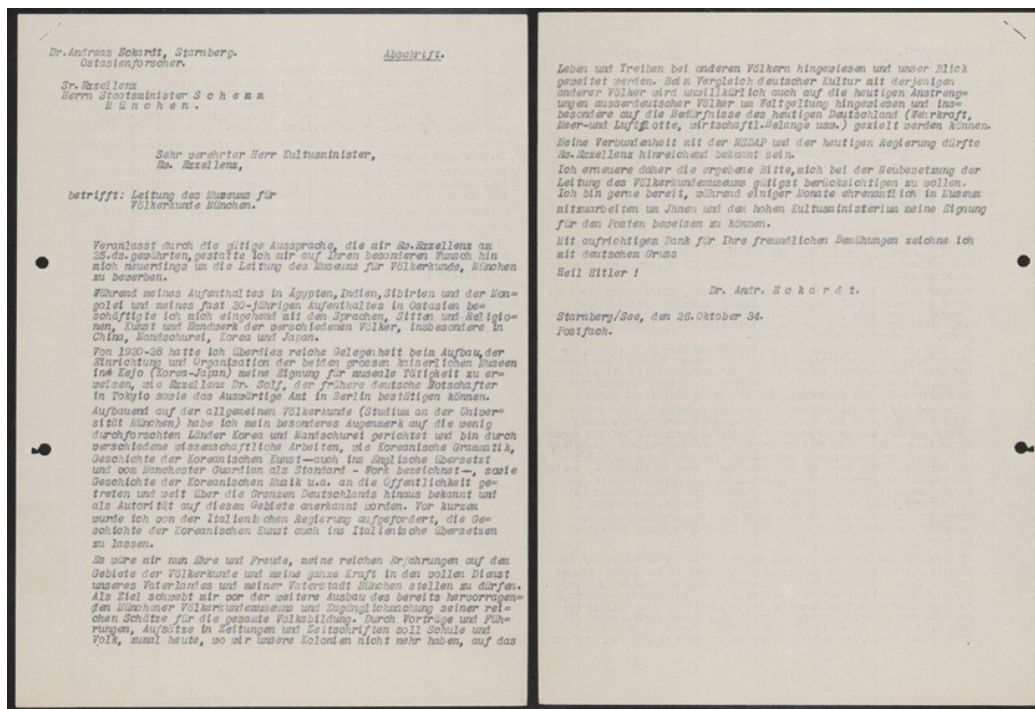


사진 12 : Hyun Chul Chung 옛 제자의 편지, 1969.01.06.
(예카르트 유물 © A. Huwe)

이화진 논문에서 복사한 ‘도’



도 2: 익명의 서신, 날짜? (이화진에 의하면 원현대학교 인문대 학장이 바이에른주 교육문화부장관에게 1934.11.23 에 보낸 서신).
(원현대 기록보관소 Y-III-11_Bd. 2; Nr. 5589; LEE 2025, p. 38 에서 인수 되었음.)



도 13: 에카르트 서신 (사본), 1934 년 10 월 26 일.
(원현대 기록보관소 Y-III-11_Bd. 2; Nr. 5589; LEE 2025, p. 51 에서 인수 되었음.)